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월 16일)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고사리손으로 모은 자비온정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운영하는 선재어린이집 원아들이 무인 자선바자회를 통해 모연된 기금 55만940만원을 2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운양로원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원아들이 직접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과 의류 판매 등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바자회 물품 일부는 미얀마 난민을 위해 전달됐다. **글= 임은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범불교도대회 잠정 보류 정기국회 이후 여부 결정

범대책위, 10일 9차 회의서 결의

전국승려대회 후속 조치로 2월 중 봉행 예정이던 범불교도대회가 잠정보류됐다. 불교계는 전국승려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통문화 보존 전승을 위한 입법안과 종교편향 근절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여부 등 추이를 지켜본 후 봉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종교편향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2월 1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 후속조치로 2월 중 예고된 범불교도대회의 개최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향후 대응계획 논의의 건에서 불교도대회 봉행 여부를 다룬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첫 번째 안은 예정된 날짜인 2월 26일 또는 27일에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하는 안, 두 번째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전 봉행하는 안, 세 번째는 정기국회 상황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본 이후 봉행 여부를 결정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스님들은 범불교도대회 일정을 보류하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안의 현실화 여부 등 추이에 따라 봉행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안을 선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책위는 존속시키는 가운데, 향후 추이를 파악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 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불교계 입장을 드러냈고 일부 변화가 있다"며 "범불교도대회를 연기하고 특위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도 "주지 스님들 중에도 범불교도대회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보류하는 3안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대통령 사과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 후 전국승려대회 봉행과 범불교도대회 보류에 관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발전특위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이 반드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돼야 하며, 나아가 국가법령 개정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불교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범불교도대회라는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공공영역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송지희 기자

"문화 · 기후 등 시대적 변화 적극 대응"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신년계획 발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통합종단 60주년 기념행사 예고
전통성 계승한 종단 정체성 확인
문화유산 보존 · 활용 골자로 한
'불교 문화비전 2030' 수립 예고

조계종이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특히 임인년은 제36대 집행부 마지막 임기를 맞는 해인만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잇는 가운데, 종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은 2월 10일 임인년 종단 주요사업계획을 담은 신년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매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한해 계획을 공식화해왔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문서 배포로 대체했다.

원행 스님은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삼아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스님은 "2022년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정통성을 간직한 유일한 종단으로 명맥을 이어온 조계종이 비구대처간 분규를 종식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지 60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불교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학술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전통과 미래의 공존을 도모한다.

스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콘텐츠의 보존과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폭넓은 기대를 국가제도와 종단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 '불교문화비전 2030' 수립을 추진한다. 사찰 곳곳에 민족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의 보존과 콘텐츠로서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다. 또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협력으로 추진 중인 불교무형문화유산 연구사업 'K-Buddhism'의 차질없는 진행도 약속했다.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해결을 위해 사찰림 활용을 비롯해 불교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선도적인 역할도 예고했다.

스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는 인간의 이기에서 비롯된 예고된 재앙이었다"며 "한국불교의 자산으로 온전히 가꿔 온 사찰림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생명존중과 연기적 삶을 토대로 한 불교적 가치와 친환경 생활문화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불교적 자산을 기반으로 교구본사 차원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서약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찰용 매뉴얼을 제작 · 보급한다.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어 원행 스님은 "새로운 한해가 시작됐지만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위기, 일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동안거 해제… 진제 종정예하 정진 당부

2월 15일 전국 선원 해제법회

신축년 동안거 기간 중 선방에서 용맹정진한 수좌들이 2월 15일 해제를 맞아 일제히 산문을 나섰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해제 이후에도 부단한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2월 15일 신축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내린 해제법어에서 "산문을 폐쇄하고 결제해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달이 되고 어느 듯 구순이 지나갔다. 이렇듯 시간이란 신속하다"면서 "해제일이 됐다고 화두를 놓아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할 것"이라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이어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자나 깨나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하여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정리한 〈신축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올해 동안거에는 전국 100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62곳, 비구니선원 31곳)에서 총1978명(총림 251명, 비구 1097명, 비구니 630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방장 법어 5면〉

신성민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나눔의집, 해임 취소소송에 "항소 안 한다"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 '신호탄'

이사 스님들, 정상화 위한 결단
"법원 판결 아쉽지만 수용할 것"
임시이사회 체제선 정상화 요원
"명예 회복보다 정상화가 우선"
관리감독 책임 통감…안정 찾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나눔의집 운영논란 이후 지속된 일련의 혼란이 2년만에 종식될 전망이다. 나눔의집 이사스님들이 최근 법원의 '경기도 해임명령 취소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결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스님들은 임시이사회 체제가 1년간 지속됐음에도 정상화에 난항을 겪는 나눔의집 상황을 보며, "이사로서의 명예회복보다 나눔의집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의 항소포기는 사실상 '정식이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나눔의집 정상화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1월 20일 나눔의집 이사스님 5명이 경기도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제기한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기각을 결정했다. 나눔의집 법인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됐으며, 이사스님 중 입적한 前 대표이사 월주 스님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이사스님들에 대한 경기도 해임처분은 특정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성실하게 시설이 운영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법인 이사들이 시설의 위법행위를 자세하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해임명령은 이사스님들 개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아닌,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처분이라는 것이다.



나눔의집 운영논란 이후 지속된 내홍이 2년만에 종식될 전망이다. 사진은 나눔의집 전경.

이에 대해 나눔의집 이사스님들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소를 통해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사스님들은 나눔의집이 정식이사회 체제에서 본격적인 정상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스님들은 "애초 이번 소송은 이사들 개인에게 제기된 횡령·배임 등 의혹들이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해임처분이 내려진 데 대한 부당성을 가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다시 이사로 활동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그러나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명예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前 시설장과 前 사무국장에게 운영을 전담토록 한 결과, 많은 부실운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책임은 통감하고 있기에 단지 이사 스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지속할 경우 나눔의집 정상화는 더 지체되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임시이사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파견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되레 혼란이 가중되고 정상화의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며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참담함을 느꼈다"며 "하루빨리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돼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나눔의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스님도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불교계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라며 "이제는 나눔의집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이사스님들의 항소포기는 사실상 해임명령 처분의 확정이라는 점에서, 나눔의집은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임시이사회가 지지부진했던 근본요인 중 하나로 권한의 한계가 지적된 만큼, 정식이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정상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우 스님은 "나눔의집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아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나날이 발전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 국회정각회 법문서 '十善' 실천

정각회, 2월 9일 신년법회 봉행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정치인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에게 '십선계(十善戒)'의 실천을 강조했다.

국회정각회(회장 이원욱)는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국회정각회 신년법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만이다.


2월 9일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 법문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 자리에서 법사로 나선 원행 스님은 "미륵부처님은 중생들이 십선법을 지킬 때 오신다고 했다. 우리 스스로 십선을 행할 때 미륵부처님이 나투어 고통이 없는 정토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기에 못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매순간 실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 간 갈등, 정파 간 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적 통합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도(中道), 모순과 대립을 화합하여 더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화쟁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온 불교계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모범적으로 방역에 앞장섰고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국민들을 보듬어 줬다"며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자타불이, 화쟁, 중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에, 국회 역시 정각회를 중심으로 그 가르침을 토대로 화해와 상생을 위한 행보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부회장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사무총장 도각 스님 등 임원단과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이헌승 부회장, 홍문표·김영주 고문을 비롯한 정각회 회원과 방정균 청와대불자회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들은 이헌승 정각회 부회장이 대독한 발원문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고윤환 문경시장에 공로패 수여

총무원장 원행 스님, 2월 9일
전통문화에 기여한 노력 치사
세계명상마을 지속관심 당부

조계종이 고윤환 문경시장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국가·지역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보수정비,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남다른 성과를 낸 데 따른 공로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의 예방을 받고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패를 수여했다. 원행 스님은 "문경지역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의 세계명상마을 건립에 공로가 있다"며 공로패 수여의 취지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봉암사와 김용사, 대승사 등 문경지역 사찰의 유지계승과 문화재 지정 및 보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특히 문화적으로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어 반갑고 든든하다"고 치사했다.

고윤환 시장은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의 완공을 위해 약소하지만 마무리 공사를 위한 제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과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토대로, 앞으로도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은해사 주지후보에 법일·덕조·불산 스님 출마

은해사 선관위, 2월 7일 후보등록 마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주지 후보에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총무원 前 사회부장 덕조, 운부암 선원장 불산 스님이 출마했다.

은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본)는 2월 7일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법인, 덕조, 불산 스님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2월 17일 오후 1시 육화원에서 개최된다.

법일 스님은 경주 기림사·청송 대전사 주지, 제11·12·14대 중앙종회의원, 학교법인 능인학원 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과 대구불교방송 사장을 맡고 있다.

덕조 스님은 하양포교당·영천 진불암·경산 불굴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산 스님은 동화사 금당선원장, 도성암 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운부암 선원장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백만원력결집불사 괄목할 성과…원력 모여 결실로

신년기자회견문으로 본 36대 집행부 성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임인년, 36대 집행부 마지막 해
주요종책사업 등 지난 4년 회고
"위기 기회로 만들기 위한 여정"
대사회 화두 던진 전국승려대회
국민 지지 · 공감 확보 이어갈 것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발표한 신년기자회견문에는 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제36대 집행부의 지난 4년간의 여적과 성과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원행 스님은 "종교위기의 시대, 한국불교도 예외는 아니다"며 "총무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약 4년여의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 토대를 만들어 가는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는 감동과 정성의 결집이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만원력 저금통을 들고 온 어린아이의 마음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노 보살님의 손에 쥐어진 저금통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이었고, 감동이었다"고 전했다.

실제 백만원력결집불사는 36대 집행부의 주요종책사업으로 2019년 선포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불자들의 원력이 하나하나 모여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인도 부다가야에 종단에서 건립하는 한국 최초의 사찰로 기록될 분황사는 2021년 12월에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한 데 이어, 올 5월경 완공과 함께 점안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육해공군본부 계룡대에 건립되는 호국홍제사는 국군불교 전법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불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완공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건립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도 올 9월경 준공식을 거행한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양평에 건립 예정인 문화재



백만원력결집불사는 36대 집행부의 주요종책사업으로 2019년 선포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시설 불사도 올 3월 착공식에 이어 2023년 상량식,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조계종 숙원사업이었던 불교요양원 건립불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스님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평생을 수행과 포교를 위해 전념한 사부대중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요양원은 지난해 2021년 12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물적 토대를 마련한 상태다.

난항을 겪었던 10.27 법난 명예회복 기념관 건립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등 다시 안정적인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손꼽히는 성과이며, 전통문화 체험 문화를 완전히 안착시킨 템플스테이 역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원행 스님은 "살아 숨 쉬는 전통불교문화가 온전히 보전 · 계승되어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필두로 우리사회 각처의 소외된 약자와 함께해 온 세월도 10년을 맞았다. 원행 스님은 "사노위 10년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함께하며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36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과제 중 하나였던 전통사찰 규제개선도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종단은 2019년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 ·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 관련 규제 법령 개선안 마련과 규제 철폐를 위해 고심해 왔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토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이끌었고, 사찰 경내에서 발견된 성보의 소유권 판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매장문화재 관련 지침' 도 개선했다.

현재 '재난안전법' '건축법' '매장문화재법' '문화재보호법' 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통사찰 수행환경 보호 및 자연 · 문화유산 보존에 적지 않은 도움을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대장경으로 칭해지는 '불교성전' 발간, 갈등을 화쟁으로 승화시킨 '종단화합대법회' 봉행, 승려복지 체제 확립을 위한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의 안착 등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원행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월 21일 봉행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화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와 관련한 입장도 전했다. 스님은 "여러 우려에도 5000여 스님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향과 차별이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기에, 이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36대 총무원은 올해로 끝나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은 또 다른 시작"이라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종단의 앞날에 미력하나마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언제나 국민과 불자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경주캠 '와이즈캠퍼스'로 명칭 변경

학교법인 동국대, 8일 이사회서 보고 받아

대학 발전 위한 혁신 의지 담아
행정 절차 후 2023년부터 사용
10개 대학서 6개 대학으로 개편
동국대 서울, 한국음악학과 신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명칭을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로 변경한다. 1979년 '동국대 경주대학' 으로 개교 이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2월 8일 본교 로터스홀에서 제342회 이사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와이즈(WISE)캠퍼스' 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대학 브랜드 구축을 위해 캠퍼스 특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해서다. 이미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지방캠퍼스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고려대 조치원캠퍼스는 세종캠퍼스로, 한양대 안산캠퍼스는 에리카캠퍼스로,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글로벌캠퍼스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미래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명칭 변경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해 3월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 네이밍 전문 업체와 체결하고 공모를 진행했으며, 2차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명칭 변경안을 수립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명칭인 '와이즈(WISE)' 는 '지혜' 라는 의미며, 'Wise Innovation, Smart Evolution(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해 발전하는 캠퍼스)' 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이홍천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서실장은 "캠퍼스 명칭 변경은 지방 캠퍼스가 경쟁력을 갖춰 확실하게 혁신하겠다는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8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각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로운 명칭인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명칭 변경 계획 보고에 대해 이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명칭 변경은 기정 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사회서 의결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학제 개편도 이뤄진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과 · 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기존 10개 단과대학에서 6개 단과대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미래 산업형 다학제적 학문편제로 개편을 위한 것" 이라며 "특히 스마트시티융합대학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내년부터 서울캠퍼스 예술대학에 한국음악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성악, 기악, 무용, 작곡 등이며 입학정원은 15명이다. 한국음악과 신설에 따른 입학정원은 법과대학 법학과 학생 수를 감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돈관 스님과 우송 스님은 법인 발전기금 5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오대산 사고본 실록 · 의궤 환수 '청신호'

국회 문체위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하 오대산 사고본)을 월정사로 환지본처하기 위한 여야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 촉구 결의안(이광재 의원 등 63인)' ·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채익 의원 등 31인)' 을 병합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두 결의안의 병합에 따라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와 이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정리됐다. 현재 월정사 일주문 입구에는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이 설립된 상태로, 향후 월정사가 국가에 해당 박물관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도 국회 답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청장은 "오대산 사고본이 월정사로 갔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국회 결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결의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놨다. 월정사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결의안이 병합돼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병합된 결의안이 통과돼도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정부부처의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가 지속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유력 대선 후보 탈핵 정책 기조 후퇴 '심각'

탈핵대선연대, 후보 7명 질의

李 · 尹, 탈핵 정책 반대 명확
불교계 일관된 탈핵입장 견지
"안전한 세상 위한 변화 절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2탈핵대선연대가 1월 28일 7개 정당의 20대 대선후보 7명에게 탈핵 관련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서 탈핵 정책이 심각한 후퇴 현상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탈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유보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불교계는 일관되게 탈핵과 원자력 발전 개선에 대해 지지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핵대선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김재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새로운 물결당 김동연 등 7명이다. 이 중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제외한 5명이 입장을 밝혔다. 주요 질의 내용은 △신규핵발전소인 신한울 3 · 4호기 백지화 △소형모듈원자로인 SMR 연구개발 중단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세 가지다. 답변 결과 후보들은 각자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는 세 질문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후보는 탈핵에 명확히 동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자산으로서 원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소형원자로 연구개발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대해서도 수명 자체보다는 안전 특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일관되게 위험성과 핵발전소 퇴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22탈핵대선연대가 7개 정당 20대 대선후보 7명에게 탈핵 관련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서 탈핵 정책이 심각한 후퇴 현상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탈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는 동의한 반면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와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중단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신규핵발전소 신한울 3 · 4호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마친 상태"라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표했다.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탈핵에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질의를 주도한 탈핵대선연대는 "사실상 유력 대선 후보들의 탈핵정책이 후퇴한 것"이라며 후보들 답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가 신규 핵발전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탈핵 기조 후퇴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이 1월 12일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보낸 기후 에너지 환경분야 정책 제안 질의 답변에서도 이재명 · 심상정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에 찬성했지만, 윤석열 ·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또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1월 27일 공개한 '20대 대선 기후정책 질의' 결과 이재명 후보는 탈핵 기조 지속과 석탄 화력 건설 중단, 신공항 백지화 등에 모두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이용 의지가 강력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세 가지 정책 기조에 대해 모두 적극 찬성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탈핵과 원전확대 저지 활동을 이어온 만큼, 이번 답변 내용 관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은 수년전부터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탈핵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끄는 법석을 수차례 열어왔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방안도 고민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2016년 경주 지진피해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등 불교계 단체들도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도보순례를 이어가는 등 탈핵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핵 발전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탈핵 흐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방향에서도 역행하는 행위"라며 "탈핵을 정책으로 삼지 않는 후보들로 인해 그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뤄왔던 탈핵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반대로 선회될까 우려스럽다. 후보들의 정책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탈핵대선연대는 65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합단체다. 불교계에서는 불교환경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불자선수 선전 기대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계 올림픽에서 불자선수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팀킴'으로 불리는 여자 컬링 대표팀은 2월 10일 캐나다와 첫 경기를 치뤘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불자들로 특히 불심이 돈독한 김은정 선수가 이끌고 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2018년에 이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도 의성 고운사에서 명상을 통한 정신력 강화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베이징올림픽 1500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석 선수는 독실한 불자 아버지의 기원 속에 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금메달 획득의 기대를 모았던 불자 이상호 선수는 예선 1위로 16강에 올랐지만, 소치올림픽 2관왕 와일드 선수에게 일격을 당해 4강 진출에 실패, 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스노보드 여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정해림 선수도 예선 1차에서 7위를 기록했지만 예전 종합 18위에 올라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노덕현 기자

여수보호소 참사 15주기…"변한건 없다"

공동행동, 2월 10일 기자회견
"보호소 인권침해 방지책 시급"
책임자 처벌 · 당국 사과 촉구

"철창 문을 열어라!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이하 여수참사) 15주기를 앞두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동참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소 공동행동)가 2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보호소 구금대안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 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소호에서 화재가 발생, 구금됐던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이날 외국인보호소 공동행동은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도주 방지를 우선하느라 화재가 나도 철창을 열지 않았던 당시 상황은 너무도 끔찍하다"며 "15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는 어떠하냐. 법무부의 대책은 화재예방과 경비강화에만 맞춰져있다"고 개탄했다.



외국인 보호소 공동행동은 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대안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를 언급했다. 이들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과 12월 3일 두차례에 걸쳐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보호해제 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자신들이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탄식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가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지원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자 처벌과 관계 당국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인근까지 약 1km를 행진하며 외국인보호소 내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했다.

임은호 기자

軍불자장병 전역 후 관리 본격화 된다

군종교구 · 대불청, 2월 11일 軍불자장병 전역포교 협약

年 10만 명 규모 청년 수계
군 불자 장병 전역 후 관리
사찰 · 청년회 등 연결 의미

수계 군장병들의 전역 후 신행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포교 활동이 강화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는 2월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군종특별교구 파견근무자 임명 및 청년포교 · 전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제대한 불자장병과 입대 청년불자들이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군종특별교구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군 수계 불자의 데이터를 대불청에 공유하고, 대불청은 제대 군장병들이 불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사찰과 단체, 청년회 및 불교학생회 등에 인연을 맺어준다.

이와 함께 대불청 차원에서 이들이 각 사찰청년회와 대학 불교학생회에서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또 청년들에게 맞는 군포교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군종교구를 지원한다.

2018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청년포교 · 전법사업' 업무협약을 맺게 됐고, 이에 따라 군 불자장병들의 데이터를 받기로 했지만,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군내 종교자유 방침 강화에 따라 활동은 미뤄져왔다. 이런 와중에 개인정보 동의를 거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실질적인 포교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대불청 차원에서는 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해 제대 군장병을 대상으로 대불청 입회 권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수계장병 전역 관리에 대한 불교계 목소리가 높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군내 종교중립 문제로 현실상 어려웠다. 협약을 통해 불교 장병들이 제대 후 신행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군포교가 청년포교의 산실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불자장병들의 전역 후 신행활동 등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과 파견근무를 통해 문제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마일운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2년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이후 3월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운문삼전어 안다면 방장 자격 있음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불기섬호수학심(不起纖毫修學心)하면
무상광중상자재(無相光中常自在)라.
무한낙화수류거(無限落花隨流去)하고
석양춘색만강호(夕陽春色滿江湖)로다.

털끝만큼이라도 닦아 배울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相)이 없는 빛 가운데 항상 자재(自在)함이라.
무한한 낙화(落花)는 흐름을 따라가고
해 저문 봄빛이 강호(江湖)에 가득하도다.

금일(今日)은 동안거 해제일(解制日)이라.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결제(結制)하여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달이 되고 어느 듯 구순(九旬)이 지나갔음이라.

이렇듯 시간이란 신속(迅速)함이라. 돌이켜보매 인생(人生) 또한 이와 같아서 나태(懶怠)하고 방일(放逸)해서는 청춘(靑春)이 일순간에 노인(老人)이 되어 있음이라. 해제일이 되었다고 화두(話頭)를 놓아 버리고 정신없이 산천(山川)을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虛費)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할 것이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하여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라.

중국의 당나라시대는 선가오종(禪家五宗)이 성립하여 선(禪)의 황금시대를 구가(謳歌)하던 때였다. 운문종(雲門宗)의 개창조(開創祖)인 운문선사(雲門禪師)는 동진(童眞)으로 출가하여 위법망구의 신심과 정진으로 일관하였다. 〈중략〉

당시에 또 영수(靈樹)선사라는 도인이 계셔서 수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참선지도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수좌(首座)자리를 비워놓고 어느 스님도 추대하지 않으셨다.

"수좌 스님은 언제 오십니까?"하고 대중이 물으면, "이제 태어났다. 태어나서 소를 잘 먹이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 수도(修道)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만 20년간 계속 해오셨다.

그러다 근 20년이 지나서 하루는, "오늘은 수좌 스님이 올 것이니 대중은 맞을 준비를 하라." 하고 이르셨다.



조실 스님의 명(命)이 떨어지자, 대중이 일시에 온 도량을 청소하고는 가사 장삼을 수(垂)하고 산문(山門)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웬 스님 한 분이 산문을 들어오셨다. 운문 선사께서 제방(諸方)을 행각(行脚)하시다가 영수 선사 회상을 찾아오셨던 것이다.

영수 선사께서, "수좌 자리에 모셔라!"하셔서, 대중들이 운문 선사를 수좌 자리에 모셨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칼을 가지고 와서 운문 선사의 정수리에 대고는, "이 때를 당해 어떠합니까?"하고 대번에 시험을 하였다.

이에 운문 선사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피가 범천궁(梵天宮)까지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시험을 던졌던 스님이 칼을 거두고 큰 절을 하였다.

그 후 운문선사의 법이 널리 펴져서 선사의 법제자가 20명에 이르니, 운문종파를 이루게 되고 운문선사의 선법(禪法)이 중국천하를 풍미(風靡)하였다.

세월이 흘러 운문(雲門) 선사께서 세연(世緣)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첫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둘째,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셋째,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검인가?
이 물음에 여러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했지만, 그 중에서 파릉(巴陵)스님이 답하기를,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은쟁반 위에 흰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검인가?

"산호(珊瑚)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운문 선사께서 이 답처(答處)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열반(涅槃)에 든 후, 너희들은 기일(忌日)에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다오." 라고 하셨다.

요즈음의 선지식들이 당기(當機)에 다다라 주저하게 되는 것은 견처(見處)도, 살림살이도 다 고인(古人)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무변대도(無邊大道)의 불법진리(佛法眞理)를 바로 알려면 고인들의 법문 하나하나를 다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이 운문삼전어 (雲門三轉語) 법문을 안다면 한 산중(山中)의 방장(方丈)이 될 자격이 있음이라.

필경(畢竟)에 진리의 일구(一句)는 어떠한 것이냐?

일곡양곡무인회(一曲兩曲無人會)
무한운산벽층층(無限雲山碧層層)
진리의 곡조를 한곡 두곡 읊어야 아는 이 없고
한없는 구름산만 겹겹이 푸르도다.

하늘은 푸르고 자장매는 붉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獨坐喩然一室空하니
更無南北與東西라
雖然不借陽和力이면
那得梅花一樣紅이리오
무심히 텅 빈 방에 홀로 앉으니
다시 남북과 동서가 없네
비록 그러하나
양기의 온화한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찌 매화꽃이 한 모양으로 붉으리!



총림대중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해제를 하게 되었다. 세상과의 모든 인연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정진해서 인천의 스승이요 삼계도사로 그 안목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로 산문을 나서게 되었으니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오르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될 것이다. 이는 외호대중의 공덕이요, 최상승 수행법을 만난 선근이로다.

혹 영산의 소식을 묻거든 지난 겨울의 추위로 무풍한송로의 노송은 더욱 푸르고, 영각 앞 자장매의 향기는 더욱 그윽하다 할 만하리라.

산문을 나서는 납자의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맞이하는 산문 밖 인연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劫外靈山無影樹가
枝枝花月十洲紅이라
玉爐烹飮醍醐茶하고
活舞威音那畔春이로다

겁외 영산의 무영수가
가지마다 꽃과 달이요, 십주에 봄이라네
옥화로에 차를 다려 제호로 마시니
위음이 춤추는 봄언덕이네.

생사해탈 결제, 확철대오 해제를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이 주장자라는 한 물건이 시방삼세(十方三世)와 제불조사(諸佛祖師)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일월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대중(大衆)은 아시겠습니까?

누가 시방삼세(十方三世)를 다시 건설하고 제불조사(諸佛祖師)를 다시 모신 뒤 일월을 다시 밝히겠습니까?

이 산승(산승)이 이를 터이니 대중(大衆)이 점검해 보십시오.



차물종하래 고금함구해(此物從何來 古今含九垓)
입야일물무 와야만반현(立也一物無 臥也萬般現)
본시무거래 여하유립와(本是無去來 如何有立臥)
풍취남강매 설타북동천(風吹南岡梅 雪打北崠泉)

이 물건은 어디로부터 왔는고
예와 지금을 머금어 하늘 밖이로다.
일어서면 한 물건도 없고
누우면 모든 것을 다 나타낸다.
본래 오고 감이 없거니
어찌 일어나고 눕고가 있겠는가.
바람은 남쪽 언덕 매화에 불고 눈발은 북쪽 능선 샘물을 두드리네.

이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장자라는 물건은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는 물건입니다.

위음왕불 이래로 이 날 이때까지 써 왔으나 다 쓰지 못하여 처음 같고 시방세계가 다 무너져 흔적이 없어도 오롯하고 의젓하여 오히려 새롭습니다.

오직 이 산승은 생각 생각 그침이 없이 무릎 아래를 되돌아 비쳐 볼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그 추위의 바람은 남쪽 언덕에 언젠가 필 매화나무에 불고 있고 눈발은 선방 뒷산 아래 옛 샘물의 수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산승의 삼동결제 석 달 동안의 살림살이가 이 뿐입니다. 시회대중들 여러분은 잘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해제대중도 삼동결제 동안 두문불출하고 선방에 들어 앉아 생사를 걸어두고 참선하였지요.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에게 다 같이 스스로 알게 모르게 향상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결제는 생사해탈을 마음먹을 때 이미 결제를 했고 우리의 진정한 해제는 확철대오의 그 날이 해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은 이 몸뚱이 나고 죽는 문제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근본을 얻음으로써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실증에 도달하려 정진하였습니다.

도달한 분은 도달했을 때 자연히 오도송을 했고 열반함에 열반송을 읊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중노릇을 했고 무슨 벼슬을 하고는 수행자의 올바른 이력은 아닙니다. 이는 이 몸뚱이 살아온 이력은 될지언정 깨달음의 이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이력은 오도송과 열반송이 있을 뿐입니다. 수행자에 따라 오도를 했을지라도 오도와 열반의 경지에 아무 말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비록 동안거가 해제되지만, 그 향상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확연한 조사관의 타파가 있을 때까지 해제 결제에 구애받지 말고 정진 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전부가 이 시간이요, 전부가 이 허공이로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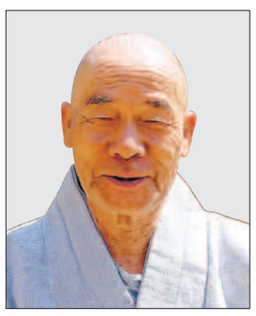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번져오고 얼었던 산천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법계에는 한 점의 티끌도 없네. 마음 달이 둥글게 밝아 이 광명은 깨닫기 이전에 도리어 비추고 있었네.

즉하에 바로 분명케 하라. 덕숭산 사십년에 무엇을 위함인가! 보석이 귀하나 눈에 떨어지면 병이 된다. - 만공 스님

첫 새벽 깊은 하늘에 총총한 저 장엄한 별무리 한 마음, 같은 관심이라 언제나 다정합니다. 인당수 넓은 모래 벌에 발 디딜 틈 없이 살고 있는 생명의 군단들 모두가 한 숨길입니다. 살아온 한 평생이 한 생각입니다. 이 절묘한 아름다움, 절절이 넘치는 신비, 놓칠 수 없는 새벽의 여명, 마하반야바라밀이요. 알 수 없는 是甚麽, 이~뭘까?

갖가지 변화의 한 평생이 대방광불화엄경인가? 요지는 응관입니다. 應灌法界性 느끼는 당체, 응하는 자리, 보고 듣는 이 물건, 공도 제로도 영도 아닌 이글이글 돌아가는 언제나 설레는 이 물건, 알 수 없는 의심덩어리, 가깝고도 가까운 그립고 반가운 억천만겁을 함께 한 신비의 이 자체, 깊은 잠에서 눈을 뜨면 是大神呪, 청소하다 돌아보면 是大明呪, 엎어치고 젖혀 뒤집어 소용돌이치는 우람한 파도도 바다로 녹아져, 물로 고요해져 언제나 제자리 만고청청. 따뜻한 가슴에 녹아진 하늘땅, 頭頭가 毘盧요, 物物이 華藏이로다.



상머슴일수밖에 없으니 내 책임이라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시봉일 뿐이니 도움이 되어야 할 일 뿐이니 세세생생 행자下心으로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자유로워진다면 시간 없는 안거요, 텅텅 비어 바쁠 것이 없으니 장소 없는 선불장입니다. 전부가 이 시간이요, 전부가 이 허공이로다. 밤마다 부처님 안고자고 아침마다 도리어 함께 일어난다.

부처님 간 곳을 알고 싶은가? 다만 말소리가 이것이다.

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
欲識佛去處
只這語聲是

부처님 간 곳을 알고 싶은가? 답을 하되, 혹은 말소리가 이것이다.

혹은 語者是 혹은 不識不識

여기에 바다 같은 답이 있고 접시 같은 답이 있고 아닌 답이 있습니다. 이 공부로 대비해 볼 일입니다.

해제는 만행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바람입니다. 모든 소리 모든 경계 모든 행동이 끝파도 바람입니다. 일체 바람이 이뭘까로 돌아와 계향이요, 정향이요, 해탈향이요, 해탈지견향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바람,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바람,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해제만행은 일체 중생을 요익케 하는 향기바람입니다. 이 공부에 탄력을 주는 바람입니다. 적적한 대적광전에 산하대지 바람이 백억 석가모니불을 화현시킵니다.

가볍게 미소 띠우며 걸음걸음 복을 짓네. 걸음걸음 끝파도요, 大神呪로다. 蠢動含靈登彼岸 벌레 한 마리도 이 품속입니다. 世世常行 菩薩道 세세생생 보살행을 축원합니다. 究竟圓成薩婆若 구경이요, 원성이요, 이 자체여! 摩訶般若婆羅蜜 이~뭘까, 이놈이 뭘까? 보석이 귀하나 눈에는 병이다. 무슨 말이냐?

해제도 결제처럼 한결같아야 하니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송나라 밀암함걸(密庵咸傑)선사께서 안거를 마친 해제 일에 법좌에 올랐습니다.

"90일 전에는 노끈도 없었는데 스스로 묶여 있다가 90일 이후에는 다리가 파리해지면서 짚신이 헐렁해졌다. 그리하여 비로소 해제 이후에 하늘이 사사롭게 만물을 덮지 않고, 땅은 사사롭게 만물을 싣는 일이 없으며 바람은 나뭇가지를 울리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깨뜨리지 않게 된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 결제대중이 안거를 회향하면서 태평스런 해제시절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설사 동쪽으로 가다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대로 서쪽으로 오다가 뒹굴면 뒹구는 대로 모든 것을 무심(無心)히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할(喝)을 하시더니 법상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어느덧 삼동안거가 지나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동안거 동안 산중의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총림의 대중들이 애써 수행정진해서 어느새 해제에 이르렀습니다. 흘러만 가는 시간에 미련을 두거나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제 기간에도



우리 본성의 바탕에서 힘 따라 애써 정진하고 생활할 때 우리는 여러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가 순일할 것입니다. 무심의 경지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해제 길에 들어서면 초목과 산천은 거듭거듭 본분의 소식을 드러낼 것이며 또 객승으로 잠시 머무는 암자에서 종과 북이 울리는 것이 때로는 해탈의 소리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고 머무를 때 정해진 장소가 따로 없으며 또 숨고 드러남이 자유자재한지라 설사 범부라고 할지라도 범부가 아닌 것입니다.

광교 성(廣敎 省)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길이 끊어지고 안개먼지가 낄 때는 어떻습니까?"

이에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눈(眼)이 없는 사람은 등불을 빌리지 않는다."

설사 땅에서 둘러 쓴 먼지라고 할지라도 그 먼지는 하늘까지 뽀얗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무심은 목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고(天鼓)가 비록 무심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미묘한 법음을 내어 중생을 교화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마치 여의주가 비록 무심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로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둔한 새는 바람을 거스르며 날아갑니다. 무심을 잘못 알아듣고서 혹여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의 바탕에서 애써 정진할 때 진정한 무심공부인(無心工夫人)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복덕이 매우 깊어 큰 바다와 같을 것이며 지혜는 막힘이 없기 때문에 허공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또 신통변화가 세간에 충만할 것입니다.

흑마답설원부적(黑馬踏雪元不跡)이요.

백어음수료무성(白魚飮水了無聲)이로다.

검은 말이 흰 눈을 밟더라도 본래 검은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고

뱅어(흰 물고기)는 물을 먹어도 마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구나.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소리 가득한 수행 · 기도도량으로

해동용궁사 2월 4일 입춘기도 회향

화엄사 말사 등록 후 첫 입춘기도
초하루 등 사재일, 기본신행 강조
가족 · 공무원불자 법회 등 신설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수행기도도량으로 발돋움한다. 해동용궁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2월 4일 입춘 3일기도를 회향하면서 삼재소멸 기도를 봉행했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이번 입춘 기도는 해동용궁사가 제19교구 화엄사 말사로 정식 등록한 후 처음으로 진행한 입춘기도이다.

해동용궁사는 "화엄사로 등록하기 전에는 새해 정초를 맞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경내는 붐볐지만, 입춘기도를 하고자 할 때 축소된 형태로 간단히 진행해 아쉬워하는 불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해수관음기도도량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춘 기도에는 주지 연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으며, 중단권공, 삼재경, 화엄경 약찬게, 화엄성중정근 등 기도 소리로 도량을 장엄해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졌다.

주지 연규 스님은 "흐트러져 있던 마음자리를 기도를 통해 바로 잡고 일념을 담은 기도소리가 모두의 마음을 환희로 바꾸었을 것으로 믿는다"며 "입춘이라는 것은 봄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마음에 봄꽃이 피어야한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얻은 힘으로 삼재를 3년 동안 복을 받는 복삼재로 생각하시라"고 당부했고, 입춘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은 "기도수행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순희(68세) 불자는 "주지 스님께서 오신 뒤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입춘기도에 동참하면서 절로 신심이 일어나고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현수(35세) 불자는 "용궁사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포교 방편으로 많은 역할을 했지만 기도를 하고자 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입춘기도를 드리고 나니 신심도 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도소리를 들려줘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동용궁사는 2월 4일 입춘 3일기도를 회향했다. 사진은 대중이 머리에 경전을 올리고 경내를 돌고 있는 모습.

해동용궁사는 입춘기도를 시작으로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하는 초하루 신중기도, 매월 음력 15일 보름 용왕방생 기도,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 매월 음력 24일 해수관음재일을 지키며 기도 수행에 주력한다.

해동용궁사는 "초하루, 용왕방생, 지장재일, 관음재일을 '사재일'이라 한다"며 "사재일은 조계종 신도의 기본 신행생활이다"고 강조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기도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기도수행도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한다"며 "이번 입춘기도는 수행도량으로 가고자하는 첫 발걸음이며 기본을 준수하기 위해 사재일을 활성화하고 가족법회, 청소년 법회 그리고 공무원불자 법회 등을 만들어 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동용궁사는 지난 1월 26일 부산 구포 진여원에 백미 500kg을 전달했다. 진여원은 매주 1회 지역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후원이 축소 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규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남보타월 원장님과 불자님들이 힘을 얻으시길 바라며 보살행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聯 전통등 강습회 개최

2월 21일~22일,
전통문화계승 및
포교프로그램 개발 · 활용


2018년 부산연등축제 제등행렬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한불교 진각종 부산교구청에서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를 개최한다.

전통등 강습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연등회의 세대전승을 도모하며, 사찰 및 신행단체의 문화포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돕고자 진행된다.

강의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며 입재식 및 교육설명에 이어 골조와 배접, 밑그림, 연등 꾸미는 방법, 채색, 연등회 영상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강습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모집기간은 2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그동안 부산불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부산시민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행사를 축소하고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코로나 기간에 지친 시민들을 빛의 향연으로 위로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뜻을 전하는 등(燈)을 아름답게 밝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며 계승하기 위해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51)867-050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존 싱글러브 장군 추모법회 봉행

1월 29일 100세로 자택서 별세
6·25 김화 전투서 대대장 활약
주한미군철수 반대해 강제퇴역



홍법사(주지 심산)가 2월 4일 경내 법당에서 존 싱글러브 장군의 별세를 추모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싱글러브 장군은 6 · 25 참전용사이며 치열했던 김화 지구 전투에서 대대장으로 활약했다. 1977년 싱글러브가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재직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반대해 본국에 소환돼 강제 퇴역 당했다. 싱글러브는 강제 퇴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는 전쟁을 유도하는 오판이다"고 말한 바 있다. 싱글러브는 "강제 퇴역을 당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아 수 백 만 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판단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싱글러브는 지난 1월 29일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자택에서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홍법사는 매년 호국영령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고 6 · 25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있다. 홍법사는 7년 전에 당시 93세였던 존 싱글러브 장군을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못했고, 딸인 데브라 싱글러브가 참석한 바 있다.

딸 데브라 씨는 당시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에서 "고령으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자유와 평화에 헌신한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후 2019년 주지 심산 스님이 미국에서 싱글러브 장군을 만나 인연을 이어왔다.

홍법사는 싱글러브 장군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일화이다"며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인연의 기운을 받았다면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것이 선한 인연의 시작이자 맺음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옥천사, 생명나눔에 휠체어 및 성금 전달

2월 9일 경내서 전달식 개최
기도기간 모은 저금통 30개도



부산 사상구 옥천사(주지 무문)가 2월 9일 경내 법당에서 '사랑의 휠체어 전달식'을 봉행했다.

정초기도 회향에 맞춰 열린 전달식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휠체어 2대와 기도 기간에 불자들이 동참하여 모은 저금통 30개가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회주 청강 스님, 주지 무문 스님과 박동범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 서보인 부산불교연합회 부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무문 스님은 "부처님법을 실천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 자신이라 생각하고 보살피는 것이다"며 "함께 나누는 보살행이 큰 공덕이자 수행이다"고 강조했다.

박동범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원해주신 신도님들과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정성으로 환자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실 것이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명사, 생활치유명상 강좌 개강

초급반 1기, 3월 31일 개강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일상에 명상을 적용하도록 돕는 생활치유명상 강좌를 개설한다.

생활치유명상은 말 그대로 생활 명상으로 일상 속에 명상을 적용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강좌는 이론과 실기로 나눠 진행하며, 이론은 윤종갑 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가 담당하고, 실기는 안영숙 금강대학교 불교학과 강사가 맡는다. 이론은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과 호흡', '지관명상과 깨달음' 등 호흡과 마음챙김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되며, 실기는 걷기명상, 호흡명상, 스트레스의 각종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정좌명상, 바디스캔 등 체험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개강은 3월 31일 오후 2시이며 매주 목요일 15강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수강료는 1학기 10만 원이다. 명상을 배우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광명사는 "생활치유명상의 이해와 실기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 가운데 깨어있어 참된 행복을 아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51)581-133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2년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제 5 기 신입생 모집

1. 모집요강

① **모집인원** : 개방형(통학)○○명
② **지원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타 종단 소속 비구니
③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진(3×4)2매
④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까지**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삼선포교원)
◦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통보
◦ 등록금 : ◆1학기당 70만원
◆재수강(본원졸업생에 한함) : 30만원
◦ 면접일시 : **2022년 3월 8일(화) 오후 2시**
◦ 개강일시 : **2022년 3월 16일(수) 오후 2시**
◦ 문의 : Tel. 02)923-0582 / Fax. 02)929-1870

2. 특전

① 졸업 후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② 장학제도 : 전 학인 2년에 총 2회 수업료 전액 지급
③ 청강제도 : 본원 졸업생 중 재수강 희망자에 한함

3. 교육과정(2년 4학기)

■ **과 목** : 1학년 1학기 금강경(야보송), 선요, 아함경 I
2학기 유식30송, 금강삼매경론, 원각경
2학년 1학기 화엄경십지품, 보조법어, 대지도론
2학기 기신론, 법화경, 무량수경

■ **학사일정** : **2022년 1학기(3월 16일 ~ 6월 22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8시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연담 묘순**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원서교부 | 2022년 1월 부터
개 강 | 2022년 3월 2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 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 대령 · 관욕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2년 3월 8일 오후 3시

고등강원내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2년 3월 10일 (목)
장 소 | 제천 금강사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강의 "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① 화엄경 : 활안큰스님
② 대승불교사상 : 서무선 법사님
③ 절 요 : 혜림스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가야史 바로잡기에 김해불교계 나서다

김해 가야비대위 2월 7일 김해시청서 기자회견 개최

비대위 혜진 · 도명 스님 등 기관홈페이지 역사표기 수정 및 임나 가야 대한 학계 주장 비판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가야사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는 2월 7일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야 정체성 확립과 역사인식 수정을 촉구했다.

김해 가야불교문화를 포함한 가야史를 바로세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해 가야사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가야비대위)는 2월 7일 김해시청에서 가야 정체성 확립과 일본 식민사관에 바탕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수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은하사 前 주지 혜진 스님, 가야불교연구소장 도명 스님, 민홍철 가야비대위 공동대표(국회의원), 김성우 가락경상남도 종친회장, 김종간 前 김해시장을 비롯해 가야비대위 고문단 및 운영위원, 총무위원,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야사 바로잡기 행동으로 △경상남도와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가야사 왜곡부분 수정 △중앙박물관 가야 연표 표기 수정 △역사 교과서의 가야사 정립 및 등재 △임나 가야 허구 입증 및 수정을 제시하고 이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은하사 前 주지 혜진 스님은 "가야불교가 융성한 김해지역에는 당시 사찰들도 많이 건립됐다. 은하사를 비롯한 이들 사찰에는 가야불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유물과 기록들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가야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김해불교계와 시민사회연대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비대위 고문을 맡고 있는 가야불교연구소장 도명 스님은 "가야사는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특히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서기 42년 가야가 건국됐지만 부정되고 있다"며 "깨어있는 사학으로 가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득권의 역사인식을 혁파하고 올바른 역사, 불교사 정립에도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김해불교계와 가야불교연구소, 가야문화진흥원 스님 및 시민사회 등은 함께 노력해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김종간 前 김해시장은 "강단사학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1세기 역사바로잡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를 환영하지만, 임나가야설 등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가야비대위 대표는 "일본측 학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나는 가야' 라는 것이 주장되는데 오히려 임나는 일본 서남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역사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야비대위는 끝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서기 42년으로 되어 있는 가야 건국에 대한 각기관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고, 유네스코 예비등재된 가야고분군 설명 또한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다"며 활동을 천명했다.

광주불교연합회, 광주 붕괴현장 위로방문

2월 7일 재난안전본부 찾아 간식 지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광주불교연합회 스님들이 희생자 천도 및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2월 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 마련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위로 방문했다.

광주불교연합회 대표단은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서대석 서구청장과 면담하고, 사고 현장에서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소방서119 수습대원, 경찰, 시청, 서구청 담당 공무원 등도 위로했다. 이날 스님들은 광주 소원정사, 원효사, 복암사, 광덕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한 500명 분의 간식(떡, 과일)을 구조활동과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구조 당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도성 스님, 도계 스님, 해청 스님, 상진 스님 등은 "날씨가 추운데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더 추울 것 같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용섭 시장도 "불교계에서 마음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인사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새해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 2월 5일 신년하례식 봉행

방장 원각 스님 "시비장단 벗어난 삶" 강조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2월 5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신년하례식에서는 각 말사에서 참석한 교구신도회 소개와 함께 방장 스님의 신년 덕담과 선물 하사, 주지 스님의 임인년 교구신도회의 역할과 당부의 말 등이 진행됐다.

방장 원각 스님은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본성의 삶 속에서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자"는 덕담을 내렸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심재상 해인사 신임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가람수호와 지역포교를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천은사 지역사회 나눔실천

2월 7일 구례군청 찾아 900만원 물품 전달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을 비롯한 천은사 대중들이 구례군청에 물품을 전달했다.

지리산 힐링사찰로 거듭나고 있는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가 지역사회 나눔실천에 나섰다.

천은사는 2월 7일 구례군청에 백미 2000kg과 성금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대진 스님은 전달식에서 "지난해 6월 천은사에 부임했지만 코로나19로 사찰 운영이 쉽지 않다. 사찰도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서울 도선사에서 마음을 내줘 이번 나눔의 인연이 이어진 것 같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한 기금과 물품은 구례군노인요양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화랑그룹, 나눔가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천은사는 지난 2019년 오랜기간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도량정비와 기도를 통해 지역사회 힐링과 나눔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제포교사회 충청지부 창립, 청주시에 거점

2월 12일 충북지역단 사무소서 창립…대경 · 부울경 이은 세번째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의 전국조직화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2월 12일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지역단 사무소에서 충청지부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국제포교사회 충청지부는 대경(대구 · 경북)지부와 부울경(부산 · 울산 · 경남)지부에 이은 세 번째 국제포교사회 지부로서 향후 충청 남 · 북 회원들의 적극적인 국제포교 활동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충청지부 창립기념 법회서는 삼귀의와 반야심경에 이어 경과보고, 국제포교사회 이재홍 회장의 축사, 김용언 초대 지부장의 기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홍 회장은 "충청지부 창립을 축하하고, 국제포교사회가 추진 중인 세계 여러 불교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에서 충북지부가 본회와 힘을 합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회원 상호 간에 협력하고 단합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용언 초대 지부장은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 간 친목이 우선 중요하다"며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함께 상의하여 구체적인 활동 목표와 내용을 세워나가겠다"고 창립 첫 해의 바람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1200년 전 기도처, 땅 속서 모습 드러내

日, 연기설화 유물 실존 밝혀져
퇴적 · 지진으로 모습 감춘 바위
'다이젠지' 주지스님 공력으로
지표 1.5m 아래 묻힌 것 발견

박영빈 객원기자

8세기경 일본 고승 코보대사(弘法大師)가 세운 암자의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위가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코치 텔레비전' 'FNN 프라임' 등 현지 언론들은 2월 6일 놀라운 발굴 현장을 특별보도했다.

고치현(高知県) 스사키시(須崎市)에 위치한 진언종 사찰 다이젠지(大善寺)가 관리하는 암자인 '후타츠이시 대사당(二石大師堂)'은 1200년 전 일본 진언종 개조인 코보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당 연기설화에 따르면 현재 다이젠지는 본래 바다로 돌출한 육지인 곶으로, 주위는 단애절벽이었다. 그 앞으로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있어 간조시에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에는 산을 넘어가는 지름길로 지역주민들이 왕래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파도로 사상자가 나오자 코보대사는 바위에 올라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며 해난을 방지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어 직접 조성한 불상을 모신 암자를 세우자 바위가 더 이상 바닷속에 잠기지 않고 사고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후타츠이시 대사당 연기설화다.



발굴된 바위를 설명하고 있는 다이젠지 주지 다카하시 스님. 사진출처=고치신문

시간이 흘러 두 바위는 계속되는 퇴적과 지진 등으로 그 모습을 완전히 감췄다. 현재는 바다와 바로 접해있었을 다이젠지에서 250m나 떨어진 곳에 해안선이 형성돼 있다. 바위의 존재에 대해서는 기록과 구전으로 지역에 전해져 왔으나 정확한 위치는 전해지지 않아 전설 속 존재로 치부돼 왔다.

다이젠지 주지 다카하시 시게노부 스님은 사찰 연기설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대사당을 관리하면서 바위의 행방을 조사해 왔다. 스님은 "300여 년 전 대지진 전까진 위치와 모양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에 실존하는 유적이라 믿고 오랫동안 조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역주민의 제보가 들어왔다. "27년 전 일이다. 산문 맞은편에 사는 주민이 바위 이야기를 듣고 '자택 근처에 바위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 말했다. 실제 그 집은 오래전 대사당 부지로 추정되는 곳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2017년 해당 주택을 구입한 다카하시 스님은 1월 21일 주택 해체공사를 마치고 발굴에 들어갔다. 바위 매립이 추정될 뿐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실패 위험성도 컸다. 그러나 바위가 지상으로 드러났다. 당시 땅을 팠던 굴삭기 기사는 "부지 안쪽에서부터 파낼 때는 삽날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으나 5시간가량 파내던 중 커다란 물체가 닿았다"며 바위가 발견되던 순간을 회상했다. 바위는 지표면에서 1.5m 가량 지하에 묻혀있었다.

지상에 드러난 부분만 가로 6.5m, 세로 3.5m, 높이 2.5m의 거암. 전체적으로 흑갈색 바위에는 파도에 침식된 흔적과 따개비 등의 조개껍질이 남아있어 연기설화의 내용처럼 바닷가에 접해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카하시 스님은 "발굴된 바위는 설화 속에 등장하는 두 바위 중 서쪽 바위로 추정된다"며 "전설 속 물건을 찾는다고 비방하던 사람도 있었기에 감격스럽다. 그동안의 믿음을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발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도 "실제 바위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바위 위에서 코보대사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이젠지 측은 "현재 발굴된 서쪽 바위에서 15m가량 떨어진 곳에 동쪽 바위가 있다는 제보와 여러 추정이 있지만 또 다른 주택이 있기에 현재로서는 발굴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中, 인터넷 신행활동 규제 나서

SNS 신행단체 폐쇄…온라인 법회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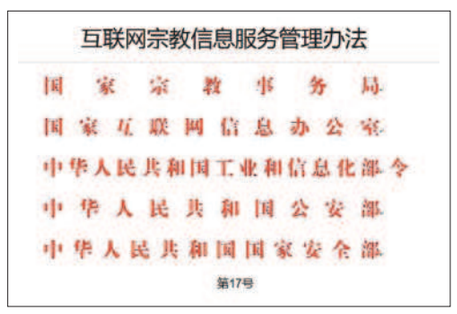
3월 1일 시행…위반 시 형사처벌

"티베트 불교 노린 것" 반발 일어

최근 중국 내에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동부 티베트 사원과 불상을 철거한 데 이어 인터넷상의 신행활동도 규제 및 금지에 나섰다. '티베트 워치' '프리 티베트 뉴스' 등의 외신은 2월 2일 중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와 그 반향에 대해 전했다.

중국정부소속의 국가종교사무국은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조치' 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률을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공표했다. 이 법률은 국가종교국을 포함해 인터넷 정보국, 산업 정보부, 공안부, 국가 안보부 등 5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제정했다. 3월 1일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중국에 전해진 종교의 온라인 활동과 법문, 신도교육이 금지된다. 또한 중국 외 종교단체의 교육도 전면 금지되며 관련된 모든 인터넷 계정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인터넷 상의 종교활동 규제법령. 사진출처=중국 국가종교사무국

특히 이번 법률 중엔 성직자, 혹은 종교법인도 인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그 어떠한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할 수 없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법문과 수계, 관정, 예불 등에 대한 생중계도 전적으로 금지되며 이에 대한 녹취, 사진, 녹음도 할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이에 대해서는 최대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해당 명령이 발표된 이후 중국 내 불자들이 모인 SNS 기도회나 지도법사,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행단체들에 대한 폐쇄 및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특히 티베트 지역 온라인 불교신행단체, SNS 단체 대화방들이 폐쇄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해당 그룹들은 주로 성지순례정보, 재일기도공유, 방생, 큰스님들의 법문요약 등을 공유하는 방으로 정치적인 색채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법회가 활성화 되면서 신행활동이 쉬워졌다"며 "특히 해외로 망명한 큰스님들이 많은 티베트의 경우 해외에서 진행되는 법회를 티베트 현지 불자들이 참석하기 용이해졌다. 법문과 수계에 대한 생중계의 금지와 해외 종교활동의 전면적인 금지 조항은 명백히 티베트 불교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률발표를 주도한 국가종교사무국은 중국내 종교단체들을 통제하는 중앙정부기관으로 중국내 불교단체들은 모두 해당 사무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불교협회의 통제 하에 있다. 중국내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중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중국정부의 잦은 정책변경과 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17세기 문맹자 위한 그림 문자 〈반야심경〉 화제

문맹자는 어떻게 〈반야심경〉 독송할 수 있었나

동물 등 이미지서 음절 끌어내
현대인에 탈문맹 방향성 제시

세계 이모티콘의 날을 맞아 미국 의회 도서관이 SNS에 문맹자를 위한 〈반야심경〉을 공개해 화제다. 문화 · 교육 전문 매체 '오픈컬처'는 2월 1일 미국 의회 도서관이 페이스북에 공개해 화제를 모은 17세기 일본이 만든 문맹자를 위한 그림 문자 〈반야심경〉에 대해 보도했다.

17세기 일본 불교는 문맹자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그림 문자로 〈반야심경〉을 제작했다. 퍼블릭 도메인 리뷰의 헌터 듀크스는 "대승불교 교리문답을 염불을 통해 알 수 있다면 문맹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며 "1100년대 이후 발음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존재했고, 다음 세기에는 염불이 예술의 형태가 됐다.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제작된 경전을 어떤 발음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대 중국어로 음차한 동아시아의 불교 경전은 완벽하게 읽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특별한 지식과 훈련 없이는 경전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일본 인쇄업자들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문맹자들을 위한 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문맹자들은 문자나 언어를 몰라도 그림 문자로 경전을 이해하고 염불 독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림 문자 〈반야심경〉은 레부스 원리를 이용했다. 레부스 원리란 예를 들어 'treason(반역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상형 문자 나무(tree)와 태양(sun)을 나란히 그려 놓고 각각 한 음절을 소리 내어 단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림 문자 〈반야심경〉은 당시 농경사회에 익숙한 농기구, 동물, 신화의 인물들로부터 그 이미지와 음절을 끌어냈다.



타치바나 난케이의 토자이 유키(1795년) 반야심경. 사진출처=오픈컬처

듀크스는 "이 그림들은 특정 사물이나 생각보다는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대 이모티콘과는 의미가 다르다"며 "하지만 17세기 일본인들은 현대 아이콘과 같이 간결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특별한 그림문자 경전은 현대인에게 탈문맹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교토 국립박물관의 아카오 에이케이는 "그림 문자 〈반야심경〉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경전"이라고 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세계 4대 종교 지도자 회의 개최

불교 · 힌두교 등 지도자 120명
부활절 테러 피해 성당 찾아가
피해자 · 유가족들에 위로 전해

스리랑카 네곰보에서 스리랑카 내 4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종교 회의가 열려 화제다. 교황청 해외선교 연구소 '아시아뉴스'는 2월 7일 "스리랑카 국가평화회의 주최로 1월 18~20일 네곰보 지역에서 종교 위원회와 함께 12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종교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 국가 평화 평회의(NPC) 대표는 "3일간 진행된 종교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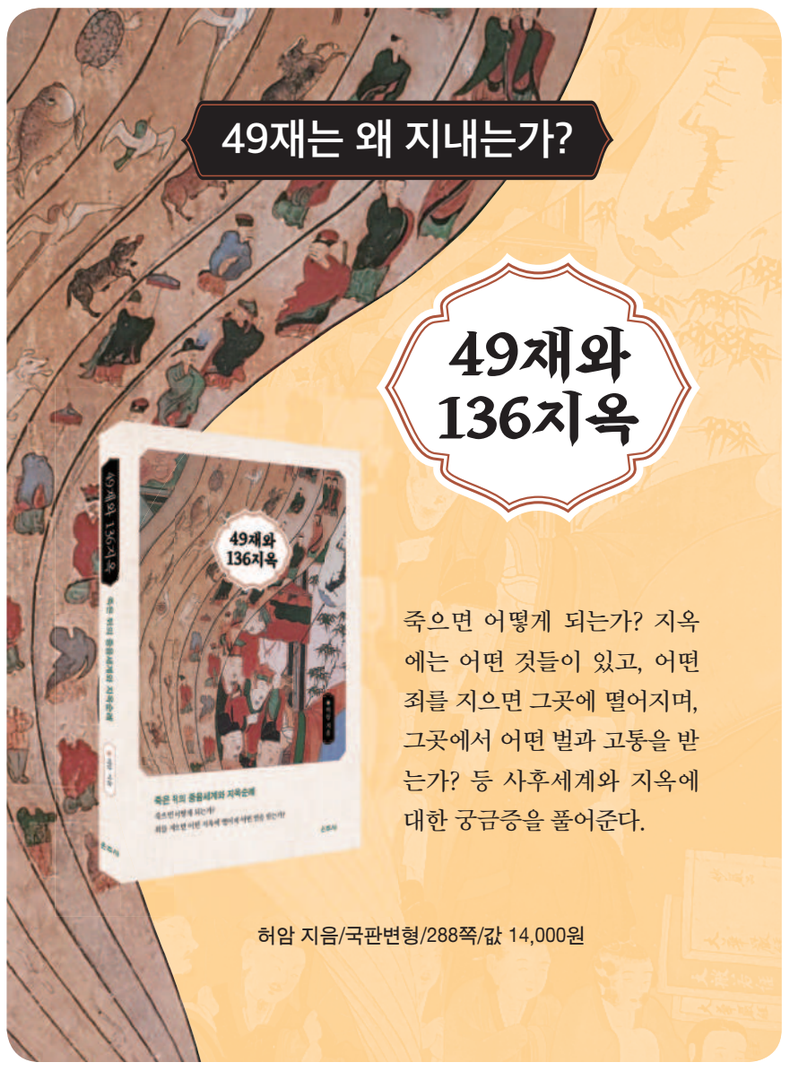
네곰보 주지사는 "이번 종교 회의는 국가 평화 평의회가 종교 간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년간 노력한 결과"라며 "회의를 통해 무슬림, 힌두교, 기독교, 불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우정과 이해, 신뢰가 생겨났다. 일반 시민에게도 평화와 화합 정신을 전해 모두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신행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형제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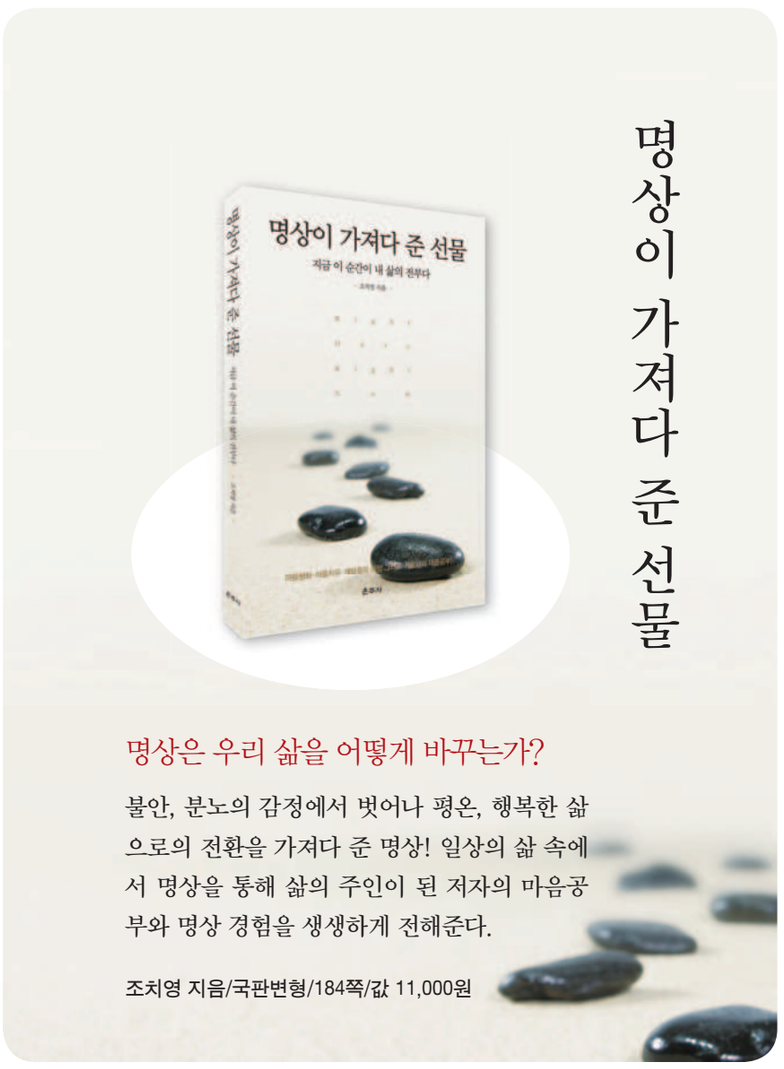
성 세바스티아노 테러 추모비 앞에 선 스리랑카 내 4대 종교 지도자. 사진출처=아시아뉴스

스리랑카 내 불교, 힌두교, 기독교, 무슬림 지도자 120여 명은 2019년 부활절 자살 폭탄 테러로 피해를 입은 네곰보 카투와피티야에 있는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을 방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마헨드란 찬드라와디니 힌두교 대표는 "2019년 부활절 테러가 있었던 성당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폭탄이 터진 곳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말했다.

네곰보 가톨릭 연합 시스완 크로스 신부는 "대부분의 종교에는 극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며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서 큰 도전과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존경받는 죽음



답은내안에 있었다
혜문 스님 지음
공경원 펴냄
2만3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간은 무엇을 위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이런 의문을 한번쯤 품는다. 이 물음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된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우리는 '나'의 본바탕이 무엇이고, 내부 정신세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우리는 의식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일깨워 앎음로써 진리의 세계에 거듭나야 한다. 내 안의 나를 찾으면 찾은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내 안의 나를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한 그것이 나를 파멸시킨다. 누가 수도(修道) 즉 도(道) 닦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반복, 반복이다'라고 답할 것 같다. 처음 발심은 임사체험으로 하였지만, 나머지 경우는 반복 또 반복 뿐이었다. 반복으로 몰아(沒我)의 경지가 되어야 한다.

〈답은 내안에 있었다〉의 저자 혜문 스님은 대구 한의대 동양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우학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시절인연이 도래해 출세간의 도를 완성코자 속세의 모든 인연들을 다 내려놓고 조계종 승려로서 출가의 길을 걷고 있다. 마침내 저자에게 찾아온 고통과 행복, 삶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 경이로운 일임을 깨닫고, 인생 그 자체가 선연이었음을 실감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살면서 여러번의 임사체험을 통해 웰다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체험했다. 그래서 얻은 저자의 결론은 "가장 좋은 죽음은 존경받는 죽음이다.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 존중심을 갖고 그 분들을 사랑할 때 고인은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모두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이것을 위해 저자는 실제로 대구 영남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기도봉사단장과 암전문 병원인 칠곡 경대병원 및 산재병원 등의 임종기도를 도맡아 하기도 했다. 또한 대관음사에서도 학생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법문을 해오기도 했다.

여러 임사체험 통해 웰다잉 중요성 인식
저자, 호스피스 병동 임종 기도 도맡아



저자인 혜문 스님이 이서중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을 당시의 모습.

많은 이들의 임종을 가까이 본 저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몸짓은 너무나도 솔직하다. 결코 과거를 숨길 수가 없다. 죽음을 누구나 예견한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평소 갖고 있는 인격체가 무너진다. 그리고 평소 생활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며 "그렇다면 아름다운 죽음,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찬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모두 내 안에 있었다. 진리를 찾는 마음의 여정을 떠나면 된다. 떠남의 이유는 현재의 진실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진실된 현재를 만났을 때,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성은 무너진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을 보는 관찰자의 본체를 파악했을 때 비로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스님은 "의식 · 전의식 · 무의식이 나의 의식층에서 현재의식인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에 반응하는 각자의 마음을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은 내가 지극한 마음이 되는 것 뿐"이라며 "지극 정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나의 의식계가 몰아의 경지를 지나야 하늘, 불성, 신성을 느끼는 진아(眞我)를 만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책은 △어머니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화 △사랑론 △출가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도반 △토굴 수도생활 △금강경 △임사체험 △죽음 △꿈이야기 △수행자의 깨달음 △실참약설 등 총 14장으로 구성돼 있다.

"죽음 맞는 자들 몸짓 너무나 솔직하다"
떠남 이유 현재 진실을 만나기 위한 것

▲저자 **혜문 스님**은?

대구 한의대 동양철학과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우학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경북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무일학원 재단 상임이사와 대관음사에서 법회 활동중이다.

"마음공부, 삶의 대변환 이루게 해줘"



명상이 가져다준선물
조치영 지음
운주사 펴냄
1만1천원

좌절, 불안, 불만, 부정, 분노 등의 감정서 벗어나 기쁨, 편안, 평온, 긍정, 행복한 삶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준 마음공부와 명상의 경험을 담은 책이다. 편하게 읽다보면 창호지에 달빛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명상을 이해하고 배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어디에? 스스로 행복한 삶 만들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목표로 행복을 꼽는다. 이는 사람들의 현재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돈 권력 명성 등등.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각자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성취되면 행복할까? 하지만 행복은 결코 외부에서 얻을 수 없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1억 원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마음공부

저자의 삶은 굴곡 그 자체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직장생활, 식당 운영, 정치인, 사업가 등등 다양한 선택을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다.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방황하면서 중년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선택해야만 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했다. 그는 마음공부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찾았다. 삶의 대변환을 맞은 것이다. 이 책은 그 경험담이 실려 있다.

명상을 통해 삶이 바뀌다

이 책은 명상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이나 기교를 담고 있지 않다. 주로 저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명상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등을 써내려간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상을 이해하고, 명상에 대한 발심을 이끌어낸다. 저자는 불안과 불만이 가득했던 삶에서 벗어나 평안과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원망하고 조급하던 마음에서 자비심과 여유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다. 욕심내고 안달복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매사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명상과 마음공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본래의 자기와 만나게 되면 피동적이고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본래의 나는 청정하고 순수하고 참된 것이다. 여기에는 에고와 탐진치가 없다. 탐진치로 인해 끄달리는 삶에서 벗어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저자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인생의 목표에 다가선 것 아니겠는가.

명상은 삶이다

명상은 당연히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호흡이나 좌선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저자는 사색, 걷기, 여행, 독서 등도 그에 못지않은 명상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경험은 이를 증명해준다. 명상은 어떤 특정한 것에 갇히지 않는다.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명상을 하고 마음공부를 해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

30대 초반에 첫 직장을 상사와의 갈등으로 그만둔 뒤, 식당 운영, 정당 사무처 근무, 경기도의원, 사업체 운영 등 다양한 일들을 했으나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정신적 방황을 하다가 오랫동안 살던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마을 산골 집서 혼자 2년간 살면서 마음공부를 하였다. 이후 구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5년 동안 본격적으로 명상과 심리상담 공부를 한 후 10여 년간 대학교와 관공서서 시민들과 공무원을 상대로 명상교육을 하였다. 한때 '한국명상심리지도사협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마음평화명상센터'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우석대 객원교수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공기업 임원 일을 하였다.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고, 서불대서 명상학을 공부해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충남대 대학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나를 만나는 기쁨〉 〈지금 이대로 좋은 삶〉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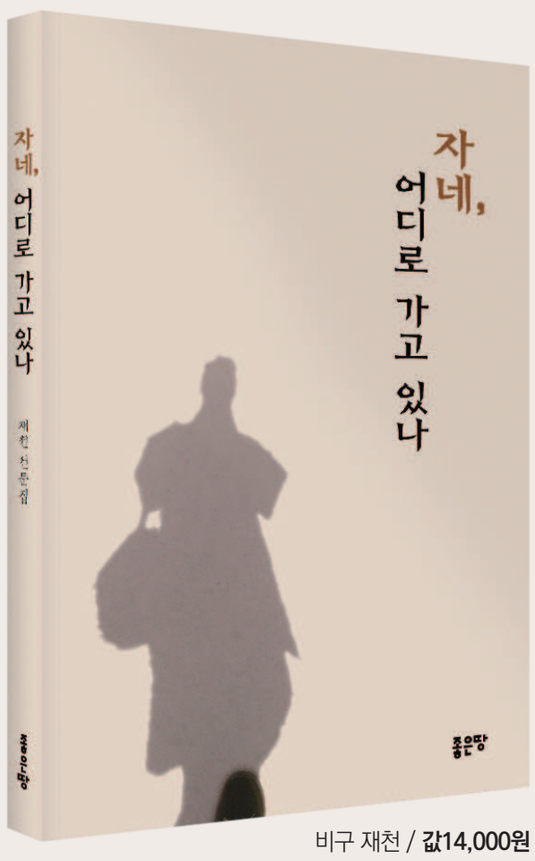
책 속의 밑줄 긋기

"명상은 추상적인 공부가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다.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요, 마음을 치유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명상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공부이기도 하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면 세상을 살기가 편해진다."

"명상은 내 삶이다. 명상과 함께 숨을 쉬고, 명상과 함께 먹고, 명상과 함께 일하고, 명상과 함께 자고, 명상과 함께 쉰다. 명상은 내 삶의 의지처다. 위태롭거나 두려운 순간에 명상에 기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명상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 마음공부로 나를 알 수 있었고,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다. 과거의 습관적이고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한 삶을 살고 있다."

※교보문고, yes24, 네이버 쇼핑 등에 제목을 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구 재천 / 값14,000원

자네, 어디로 가고 있나

딸꾹질이 자기도 모르게 멈추듯,
일체중생이 하루빨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하기를 발원하며…

이 책은 「금강경」과 편지글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중, 주위 사람들이 저자의 글을 보고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고 하여 정리하여 엮은 글이다.

글의 시작은 해인사 승가대학에 입방하였던 때이다. 입방 후 동안거를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어느 스님의 「금강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 경을 보고 더욱 맛나게 기획, 편집하며 평생 공부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경전이나 불교 관련 서적을 인용하였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형식을 빌려 쓰고 있다. 시의 형식을 빌린 곳도 있고 길게 풀어서 쓴 곳도 있다. 어려운 한자나 생소한 단어들에는 저자의 해석을 추가해 놓았다. 중간중간 사진을 함께 실어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과 인연 닿은 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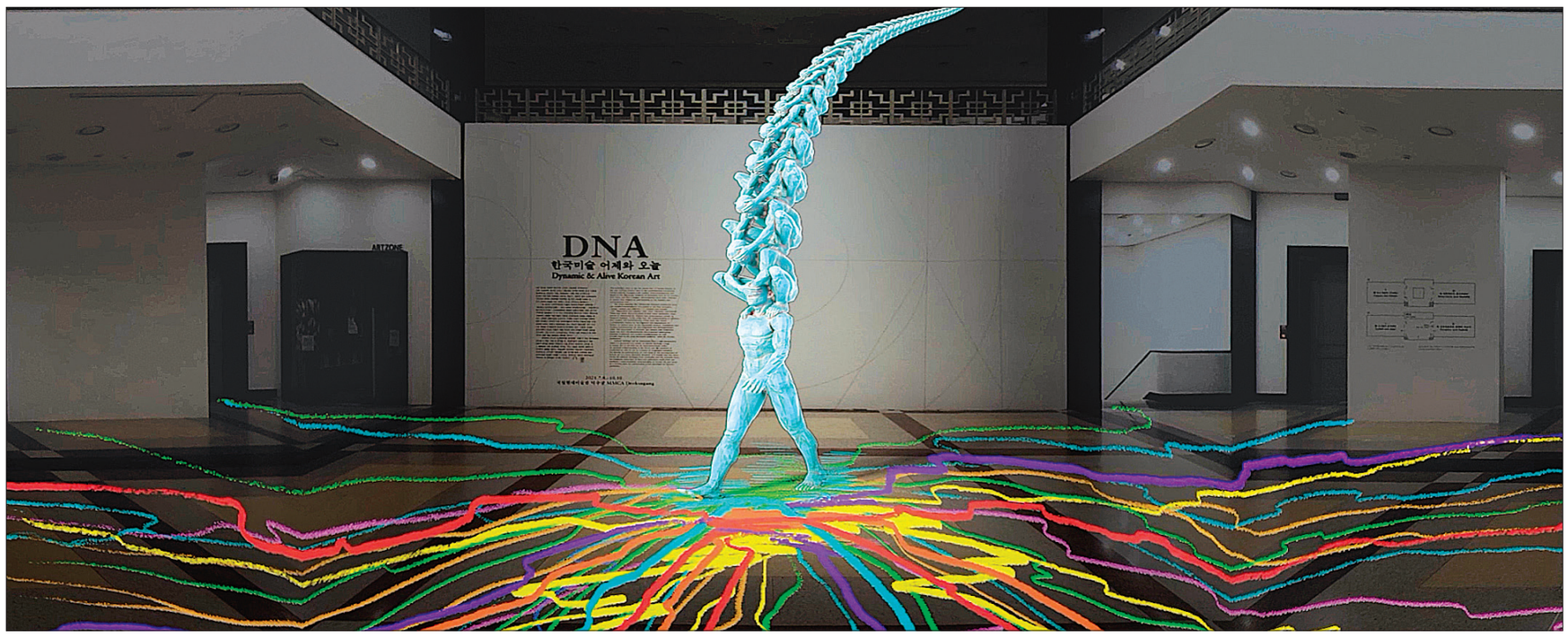
◈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사찰서점 판매중 ◈ 1권도 전화주문 가능 : 붓다북(구 운주사) 02-3672-7183 / 법우당 031-945-4535 좋은땅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국립현대미술관 VR Episode 2
서도호 '카르마'

오프라인 전시작 VR 영상으로 재탄생
'업보'서 영감, '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오프라인 작보다 다채, 조회수 140만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MMCA VR | Episode 2 | 카르마 | 서도호 1-4 screenshot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전시됐던 미술작품이 가상현실에서 재탄생한 작품을 소개한다. MMCA VR Episode 2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Karma)'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MMCA VR 영상 시리즈, 즉 실감나는 한국미술 콘텐츠를 제작해 제약 없는 '미술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한국 작가의 작품을 360° VR 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는 2021년 7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린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을 통해 전시됐던 작품으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카르마'(2009)의 원형 틀을 활용한 조형물이다. 제목으로 쓰인 '카르마'는 '업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작가는 그 의미에서 영감을 받아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지나온 시간과 세대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론가 걸어가는 인간의 어깨 위로 인물들이 무한하게 뻗어나가 천장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바닥에서 시작되는 오름차순, 천장의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내림차순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나'의 어깨에 앉아있는 나의 업보들, 혹은 무수히 많은 조상들의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있기까지 기여한 존재를 보여주며 지난 세대, 시간과 끊임없이 관계 맺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치 나무의 뿌리, 가지, 잎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가계도(family tree)'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서도호의 '카르마'는 서로에 대한 의지, 존재의 기원 등을 보여준다.

VR로 재탄생한 서도호의 '카르마' 영상(3분)은 지구 반대편 런던에 있는 서도호 작가의 열정적인 참여와 자료 제공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 새롭게 태어난 서도호의 '카르마'는 실제 미술관에 전시됐던 작품보다 훨씬 다채롭다. 여러 그림들이 함께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영상 속에서 어떤 성인이 아이를 목마로 태워 걸어가면서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작가가 이 작품 제작에 영감을 준 '눈가리개'를 표현한 것이다. 서 작가는 종종 딸들에게 목마를 태워주곤 했는데, 아이들이 그의 이마를 붙잡고 눈을 가렸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업보임과 동시에 위태로운 순간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나 출생 환경 등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자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련의 탑을 이룬 현상들은 업보를 상징하는 동시에 위태로운 순간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나타낸다. '카르마'는 수많은 조상들과의 인연과 신뢰, 서로에 대한 의지, 업보, 존재의 기원을 보여주며,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과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영상의 백미는 재생 중인 영상을 360° 로 돌려보며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일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 화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TV와 같은 큰 화면으로 감상할 경우 다른 차원에 들어간 기분을 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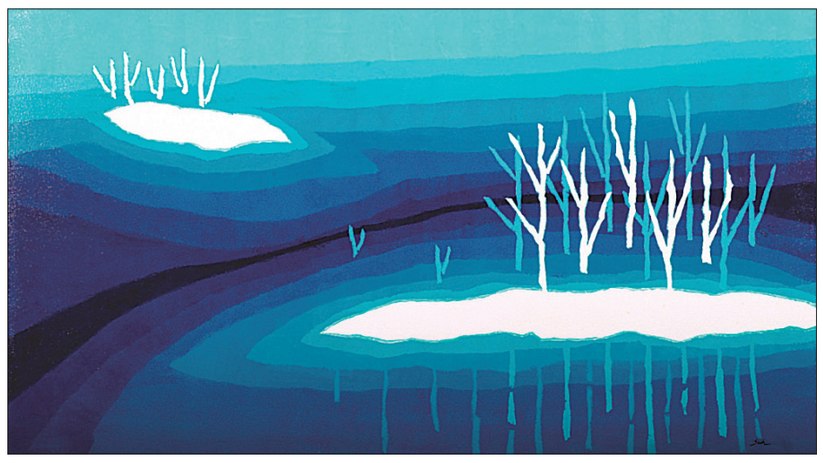
전시 공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서도호의 '카르마'는 VR 영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다. 영상은 큰 호응을 얻으며 14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은 한국미의 근간을 조명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재와 근현대미술의 유기적 관계고찰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조명한 전시로 국보, 보물 등 문화재 35점과 근현대미술 130여 점, 자료 80여 점을 전시하며 '한국의 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미의 DNA를 찾는데 의미를 두었다.

서도호 작가는 뉴욕과 런던,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설치미술가이자 동시대 미술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유학 생활을 했는데, 유학 초기 '공간'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불편하고 낯선 감각을 '공간의 이동과 전치'의 개념으로 승화시켜 작품화했다. 고정된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시공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유목적인 공간'의 개념을 탐구하며 '집 속의 집'이라는 대표작을 선보였다.

푸른 이상향 이미지로 전하는 '명상'

서경자 개인전 'MEDITATION'
갤러리 이즈 2월 16일~3월 1일


서경자作 명상시리즈4.

마음의 평온과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명상시리즈' 작품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서양화가 서경자가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 'MEDITATION'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서 작가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단순명료한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삶의 시작과 함께하는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원초적 생명탄생의 신비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인생의 담론을 진지하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풀어냈다. 블루 계열의 채색이 주류를 이루어 화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량감이 감상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명상 시리즈는 점점 번지는 파장의 흐름이 설렘으로 다가오고 머물렀던 생명체는 더 이상 정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 소통의 기운을 나눈다. 또한 작품 속의 나무는 땅과 하늘의 기운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주의 평화와 개인이 누려야할 행복을 기원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주체적 삶이 다양성 존중을 전제로 풍요를 만들어 즐거움이 동반된 인생 여정의 출발이 되기를 염원하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작품 속의 추상적인 원은 흥분되고 감각적인 떨림으로 그 주변에 서서히 퍼져나간다. 이러한 시각적 폭발은 심미적이면서도 풍미 있게 꼬물거리며 동시에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작가의 의도는 최소한의 마띠에르로 본질을 포착하고,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삶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해 내는 것에 있다. 회화적 탐구는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해 가는데 흥분을 느끼며 공기, 물, 증기, 식물과 같은 미세 유기물적 요소를 탐색하고 있다. 서경자의 '명상'은 우리를 시각적 명상으로 이끄는데, 창조의 신비한 비밀에서 맥박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관찰한다.

서양화가 서경자는 "푸른 이상향의 이미지 'The blue'를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명상 시리즈 작품을 해왔으며, 마음실어내기 'The red in blue'로 이어져 이번 전시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명상 시리즈를 통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명상'이라는 대전제 앞에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지만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대중에게 조금이나마 평온의 시간을 주고자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서경자 화가는 홍익재학교 서양화과, 동 대학원 판화과를 졸업했다. 300여 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02)736-6669. 박재완 기자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입회비 20만원), 무료특강 (2년코스)
개 강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수업,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 다루는 법(목탁·요령·북·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장소 안성 봉운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일죽면 고은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010-5306-0856

매주 목요일 교육 시간표		
오 전		
9시	천도재	법원스님
10시	천도재	법원스님
오 후		
1시	교양과목 : 태평소	대산스님
2시	북 타법	진효스님

※ 수업은 시간 강사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행사 문의 ★
윤달 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일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259
[부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

“조계종 단일 기본교육기관 설립 시급”

탄형 스님, 〈불교와 사회〉 연구 논문서 주장

현 조계종 기본교육 현황 분석
기관 삼원화… 중복 이수 많아
학인 감소로 입학정원 못 채워

과감한 교육기관 구조조정 필요
“종단 직영 종립학교 탈바꿈을”
전통강원, 무형문화재 지정하고
전통 · 현대 교육 병행 재구조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사찰승가대학(전통강원)은 물론이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기본선원까지 아울러 종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일 기본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출가자 감소로 학인 수가 급감함에 따라 기본교육기관 구조조정은 승가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뚜렷한 해법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찰승가대학 등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통합해 종단 직영 단일 기본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과 실천불교전공 박사과정 탄형 스님은 〈불교와 사회〉제13권 1호에 발표한 연구논문 ‘사찰승가대학(전통강원)의 역할과 대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찰승가대학(전통강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 스님들. 사찰승가대학, 대학교, 기본선원으로 삼원화된 기본교육기관을 조정하고 단일화된 종단 직영 교육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현대불교 자료사진

탄형 스님은 논문에서 종단 기본교육기관 현황을 분석하고 노정돼 있는 문제점을 되짚었다. 현재 조계종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기관은 사찰승가대학 14개소, 대학교 2개소, 기본선원 1개소로 총 17개소다. 현행 5급 승가고시 합격자가 100여 명 대(2021년 99명)인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교육기관들에 평균 10명이 안 되는 학인이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탄형 스님은 “(승가기본교육기관은) 인천의 사표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임에도 대의를 보지 않고 각 사찰의 운영을 위한 안위만을 생각해 종령을 바꾸면서 학인 정원의 하한선을 여러 번 조정했다”고 지적하며 “기본교육기관 적정화는 20년이 넘도록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삼원화된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탄형 스님에 따르면 사찰승가대학 이수 후 다시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인들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중복 이수는 종단 차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행정 · 정재 낭비로 이어진다. 승가교육 커리큘럼의 변화가 이뤄진 제6, 7대 교육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승가교육기관이 일원화되지 않고, 기본교육기관이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만큼 교육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본교육기관 전반의 조정을 재차 주장했다.

“스님이 되기 위해 강원만한 곳이 없다”는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강조한 탄형 스님은 사찰승가대학(전통강원)의 강점으로 대중생활을 통해 승려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그렇기에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강원교육을 전문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형 스님이 제시한 방안은 종단 단일 교육기관 설립과 이를 통한 전통 · 현대 교육 병행이다. 승가의 전통적인 강원교육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탄형 스님은 “종단의 모든 기본교육기관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현재 위상을 버리고 종단에서 직영하는 종립학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종단 직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도 전통승가교육과 현재 지식 및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전통강원을 전통교육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운영체계와 내용을 구체화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전통승가교육을 지속 ·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종단 직영 단일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한 후 1, 2학년에는 전통강원에서 교양과목과 수행필수과목을 이수하고 3, 4학년에는 단일교육기관에서 전공 중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탄형 스님은 “기본교육기관 단일화를 통해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승가교육 일원화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또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학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종단 차원의 삼보정재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곡된 백제사 바로잡는다

부여군, ‘사비백제사’ 출간 추진
2월 중 발간…백제 불교 조명도

백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비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비백제사 재정립’ 사업이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비백제사 재정립 연구는 왜곡된 백제사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예산 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비백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역사서 발간을 골자로 한다. 이에 부여군은 〈사비백제사〉에 대한 집필 내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백제학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기획회의와 편찬위원회, 집필진 워크숍 등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였다.

〈사비백제사〉 집필에는 편찬위원장인 성정용 충북대 교수를 비롯해 권오영 서울대 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 김낙중 전북대 교수,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 등 편찬위원을 포함한 국내 백제사 전문가 40명이 참여했다.



지난 2020년 9월 진행된 〈사비백제사〉 편찬위원회 모습.

〈사비백제사〉는 1권 ‘사비시대를 연 성왕과 사비도성’, 2권 ‘불국토의 나라와 유려한 백제문화’, 3권 ‘백제와 함께 한 의자왕’을 주제로 해 총 3권으로 출간된다.

1권과 2권은 사비천도 배경과 성왕, 사비도성이 가진 의미, 백제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비백제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권은 의자왕과 백제가 간직하고 있는 왜곡된 이야기의 재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김흔의 시에서 처음 언급되는 ‘삼천궁녀’라는 표현에서 숫자 ‘삼천’은 ‘많다’는 뜻으로 역사적 근거가 없는 단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는 낙화암 삼천궁녀 표현이 보이지 않으며, 시적 수사로 표현된 허구임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아 백마강을 건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조룡대’도 승자와 패자의 관계 속에서 용의 죽음을 백제의 패배로 나타낸 것으로 문학적으로 재생산된 표현이다. 백제의 번창과 강력한 수호를 상징하는 용이 백제 패망의 증거물로 변이되고 전승된 것이라는 것이 사비백제사 연구에 따른 설명이다.

부여군은 원고 집필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출판계약을 완료했으며 감수와 교정 · 교열, 디자인 작업을 통해 오는 2월 중 출간할 예정이다.

박정현 군수는 “백제가 멸망한 뒤 1500년 만에 왜곡된 백제사를 우리의 시각으로 새로 썼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백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그 인식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여러 편찬 계획을 통해서 대학 역사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역량을 투입해 정교하고 탄탄하게 집필했다”며 “단순히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론서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만든 책인 만큼 역사학도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널리 읽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용어 변경…분류체계 개선

문화재청 연내 변경 추진

문화재청이 지난해 국보 · 보물 · 사적 등에 붙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 변경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 개편 방안을 문화재위원회에 분과별로 보고하고 연내에 관련 방침을 확정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는 옛 유물이나 재화를 상징하며 자연물이나 경관 등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을 둘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들로부터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모은 뒤 3~4월쯤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률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붓다와 원효가 만난 접점은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붓다와 원효의 철학’



기원전 624년에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는 권력과 재력을 버리고 카필라성을 떠나 출가해 깨달음을 이뤄 붓다가 됐다. 이후 신라에서 태어난 원효 스님은 붓다의 법을 이어받아 일심(一心)과 일(본)각(一(本)覺)을 펼쳐냈다.

인도와 한국에서 1천여 년의 시공간이 떨어졌음에도 붓다와 원효는 법(法)으로 만나 소통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한국불교학회장)가 발간한 학술연구서 〈붓다와 원효의 철학〉은 붓다와 원효의 사상이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붓다가 펼친 중도 연기와 원효가 펼친 일심 · 일(본)각이 만나는 지점과 소통하는 지점에서 불교사상사는 크게 발전했다”며 “붓다가 중도와 존재자들의 존재법칙에 집중했다면 원효는 존재자들의 본래마음과 수행체계에 치중해 설했다. 그리해 붓다와 원효는 존재법칙과 본래 마음 사이의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붓다와 원효 모두 인간을 자유롭게 했음을 전제하면서도 그 방법에는 연속점과 불연속점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닿는 점 위에서 붓다의 독자성이 드러나며 끊긴 점 위에서 원효의 독자성이 나타난다고 고 교수는 강조한다.

책 말미에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원효 저술의 편서 및 역서, 원효 관련 단행본, 논문, 박사논문, 석사논문 등이 정리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부산불교어산회 회원모집

한국범음범패 역사 120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온 부산불교어산회(현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의 모체) 로서 과거 통,범소리(통도사, 범어사의 범패소리)를 하는 스님들이 어산을 수련하는 단체이며, 그 행적(行跡)으로

1800년대 | 부산어산회 발족. 기념사업으로 범어사 경내에 어산교 준설
1897년 | 범음요집 발행
1947년 | 대산집 발행
1972년 | 부산무형문화재 제1호 「범음범패」로 지정
1993년 |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지정

본 단체는 선배제현께서 물려주신 의범(儀範)을 수련연마하고
각지역 및 해외 공연과 시연으로 불교전통음악을 널리 알리는 소임을
같이 할 뜻있는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 임시모집일 : 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합동수련개시일 :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 문의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산불교어산회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3



▶ 54회 예고

아쇼까의 어린 동생 비가따쇼까가 빈두사라왕에게 간청하여 아쇼까는 특별 휴가를 받는다. 강가강에서 기도해 왔던 다르마 왕비는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한편 담마팔 사문은 데바 부인의 편지를 받고는 산치 절로 돌아간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 모사를 꾸미다

빠딸리뿌뜨라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강가강을 통해 들어온 이집트나 페르시아의 물품들은 물론 잠부띠바의 토산품들이 외성 저잣거리에 넘쳐났다. 여인들은 까시산(産) 붉고 노란 비단사리를 화려하게 걸치고 다녔다. 흰색 도티 차림의 청년들은 달리는 수레 안에서 여인들을 구애하듯 크게 노래 불렀다.

다만, 활력이 넘치는 빠딸리뿌뜨라 이면에 그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빈두사라왕의 오래 된 지병이었다. 빈두사라왕은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생긴 심장병을 앓았다. 병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거나 갑자기 무기력해지곤 했다. 빈두사라왕의 지병이 도질 때마다 측근 대신들은 초조해했다. 수년째 궁중의원들이 치료해왔지만 지병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들 중에서도 수상 칼라따까와 제관 라다굽따는 특히 마음을 졸였다. 작년에 수시마가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을 때는 더욱 불안해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로의 저택으로 찾아가 은밀하게 의논했는데, 작년부터는 왕궁 안에서도 둥근 대리석 기둥 뒤에 숨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그날도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왕궁 안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러다가 수시마 왕자가 왕궁에 눌러앉아버리지 않겠소?"

"다르마 왕비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쇼까 왕자가 웃자인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몹시 불공평하다고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제관 동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안심이 되오."

"우리가 있으니 대왕님 마음대로는 하시지 못할 겁니다. 다르마 왕비님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수시마 왕자가 탁실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대왕님께서는 수시마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시니까 신경이 쓰여 그러지요."

두 사람은 맞은편에서 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수시마 왕자가 곧 탁실라로 떠난다고 하니 지켜봅시다."

"우리가 수시마 왕자에게 당할 수도 있소. 이번에야말로 서둘러 해결해야 해요."

칼라따까가 해결한다는 말은 아쇼까를 불러들이자는 뜻이었다. 아쇼까를 빠딸리뿌뜨라로 불러들인 뒤, 아예 빈두사라왕의 유고시까지 왕궁에 살도록 모사를 꾸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묘수를 찾아낸 것은 아니었다. 아쇼까의 어머니인 다르마 왕비의 힘을 빌려야 했다.

"아무래도 아쇼까 왕자를 부르는 것은 다르마 왕비님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소. 만약 우리가 대왕님께 직접 건의했다가는 눈밖에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수상 동지께서 다르마 왕비님을 한 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오. 다르마 왕비님은 동지를 더 신뢰하시는 것 같으니 제관님이 가보시는 것이 어떠하겠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때를 보아 왕비 별궁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왕궁을 지키는 친위대장을 보고서야 헤어졌다. 친위대장은 두 사람의 동태를 수상히 여기고 가까이 왔다가 돌아섰다.

며칠 후.

라다굽따는 왕비 별궁으로 찾아갔다. 정원에서 비가따쇼까를 데리고 있던 락슈미띳사가 라다굽따를 맞이했다. 비가따쇼까는 키가 훌쩍 자라 제법 의젓했다. 외모는 커갈수록 빈두사라왕보다는 다르마 왕비를 닮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라다굽따는, 비가따쇼까가 집착이 유난히 강한 빈두사라왕을 닮은 것 같다고 다르마 왕비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 하나밖에 없는 아쇼까의 친동생이었지만 약간은 조심스러웠다. 빈두사라왕은 영토확장이나 여인들에게 지나칠 만큼 끊임없이 집착했던 것이다. 충직한 시녀 락슈미띳사가 다가와 말했다.

"요즘 왕비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대왕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가?"

"그것도 이유입니다만 다른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다굽따는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다.

"왕비님께 말씀을 드려 보게. 잠깐만 뵙고 가겠다고 말이네."

"제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락슈미띳사가 왕비 별궁으로 들어가자 비가따쇼까가 다가와 말했다.

"저는 어머니께서 왜 아프신지 알고 있어요."

"왕자님, 왕비님께서 아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추측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10살도 안 된 비가따쇼까는 어른스러웠다. 라다굽따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도 같았다. 비가따쇼까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아쇼까 형님을 기다리시고 있어요. 몇 년째 기다리시다가 병이 나신 거죠. 어머니 꿈은 아쇼까 형님과 내가 우애 있게 지내면서 대왕님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거예요."

라다굽따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비가따쇼까가 자기 생각을 명석하게 표현하는 태도는 어른과 흡사했다. 아쇼까와 비가따쇼까가 형제애를 발휘해서 합심한다면 마우리아왕조의 영광은 길이 빛날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제관님을 믿으시니까 반드시 만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비가따쇼까 왕자님, 든든합니다."

"든든하긴요, 제관님은 우리 편이죠? 수시마 형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왕자님, 왕궁에서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쇼까 왕자님이나 왕자님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저도 알만큼 아니까요."

락슈미띳사가 웃으며 다가왔다.

"제관님, 왕비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왕자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관님, 저는 담마팔 스승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가따쇼까는 왕비 접견실로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담마팔 스승을 만나 산스끄리띠어와 별자리를 공부할 시간이라며 왕자들 별궁 쪽으로 뛰어갔다. 다르마 왕비는 며칠 동안 누워있던 환자답지 않게 정갈한 모습으로 라다굽따를 반겼다.

"제관님, 어서 오세요."

"조만 간에 아쇼까 왕자님을 반드시 빠딸리뿌뜨라로 오시게 할 테니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쇼까만 생각하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고, 한숨이 나와요. 한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답답할 뿐이지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대왕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니까요." "대왕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수시마를 편애하는 것도 모자라 아쇼까를 경계하는 빈두사라왕이었다. 그러니 빈두사라왕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왕비님, 수시마 왕자님이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왔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아쇼까 왕자님도 특별휴가를 달라고 대왕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내 아들 아쇼까가 다녀간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대왕님께서 특별휴가마저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왕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웃자인은 아쇼까 왕자님이 통치를 잘하시어 마우리아국 어느 소국들보다 평화롭습니다. 소요나 반란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르마 왕비가 한숨을 길게 내쉬자, 락슈미띳사가 찬물이 든 사발을 가져와 왕비에게 바쳤다. 다르마 왕비가 찬물을 들이켰다.

"제관님, 속에서 불같은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는 찬물을 마시곤 한답니다."

라다굽따는 다르마 왕비를 위로했다.

"왕비님께서 아쇼까 왕자님의 특별휴가만 허락 받으신다면 그 다음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다르마 왕비가 일어서려다 말고 다시 주저앉았다. 라다굽따가 책임진다는 말은 아쇼까가 웃자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빠딸리뿌뜨라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제관님, 믿어도 될까요?"

"왕비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왕비 별궁을 나온 라다굽따는 왕궁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저택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강가강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바람이 낮 동안에 뜨거워졌던 대지를 식혔다. 왕궁 정원의 나무와 꽃들이 생기를 되찾았다. 내성과 외성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사뭇 여유로워졌다. 젊은 남녀들이 탄 수레는 속도를 내어 달렸다. 그러다가 수레끼리 부딪치는 가벼운 사고가 나기도 했다.

라다굽따는 천천히 수레를 몰아 칼라따까 저택에 도착했다. 가끔 들렀던 칼라따까 저택이었으므로 지름길을 알았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를 귀한 손님처럼 정중하게 맞았다.

"제관이시여, 오늘은 무슨 희소식을 가지고 왔소?"

"왕비님께서 대왕님께 아쇼까 왕자님의 특별허가를 허락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다굽따는 칼라따까의 저택 2층으로 올라갔다. 칼라따까와 은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용했던 2층 거실이었다. 칼라따까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특별휴가만 받으면 우리 계책대로 진행되겠지요."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비님이 기뻐하셨겠소. 그러나 왕비님이 원하는 바는 우리와 다르지요. 왕비님은 아쇼까왕자와 빠딸리뿌뜨라에서 함께 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아쇼까 왕자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것이니까."

"수상이시여, 그것은 수시마 왕자를 탁실라에 묶어두어야만 가능합니다."

라다굽따는 수시마를 탁실라에 묶어두기만 한다면 빈두사라왕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칼라따까는 이미 계책을 세워두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걱정할 것 없소. 수시마 부왕이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는 동안 탁실라에 부왕 대리로 파견했던 특사가 나의 심복이라오."

"그가 수시마 왕자를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끔 한다는 말이오?"

"물론 수시마 왕자는 부왕이고 그는 수시마의 명을 받아야 하는 특사일 뿐이오. 그러나 내 심복인 특사는 지금쯤 수시마 통치에 반감을 가진 성민들을 은밀하게 회유하고 매수했을 것이오. 내가 지시만 하면 소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오. 소요가 일어났는데 수시마 왕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겠소? 설령 대왕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오지 못하겠지요."

"기가 막힌 계책이오!"

라다굽따는 칼라따까를 보면서 무릎을 쳤다. 자신의 심복을 특사로 파견한 것부터 칼라따까의 계책은 한 치의 빈틈이 없었다. 더구나 빈두사라왕은 특사를 신임했다. 칼라따까가 특사를 추천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명했던 것이다. 탁실라 부왕 수시마도 마찬가지였다. 특사가 탁실라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호족성민들을 만나는 데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사는 칼라따까의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❸ 선승의 태몽



▶한줄요약
선승의 전생을 알려주는 태몽은 생을 거듭해서라도 깨달음을 얻겠다는 맹렬한 다짐과 간곡한 서원을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선승의 탄생을 예견한 태몽

3. 불보살의 계시

선승 태몽은 민속 태몽의 자장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되면서, 다른 한편 부처님 태몽과 탄생담을 수용했다. 또 불보살의 계시를 통해 선승의 탄생에 더 큰 불교적 의미를 담았다. 무염(無染, 800년 탄생)의 태몽에서는 하늘에서 긴 팔이 내려와 '연꽃'을 건네준다. 연꽃은 불교적 가르침을 대변하니, 그 잎과 꽃이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정(淸淨)'을 환기하고 '집착 없음'이나 '장엄(莊嚴)' 등을 뜻하기도 한다. 주로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있으니, '긴 팔'은 관세음보살의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건네주어 아기 선승의 잉태와 탄생을 계시한 것이다. 무염국사는 태어나자마자 합장을 하고 앉을 때는 가부좌를 튼다. 불상을 그리거나 모래로 불탑의 모양을 만들며 놀았다.

사명대사(泗溟, 1544년)와 영허대사(暎虛, 1792)의 태몽에서는 불보살이 직접 나투신다. 사명(泗溟)대사의 어머니는 황색 두건을 쓴 금인(金人)을 따라가서 부처님을 알현한다. 잉태될 아기가 부처님을 받들 것이란 계시를 받은 것이다. 과연 아이는 특별하여 모래를 쌓아 탑을 만들거나 돌을 세워 부처님으로 삼고 공양을 올린다. 영허(暎虛)의 어머니는 불상의 서기(瑞氣)를 본다.

불보살은 승려를 대리자로 보내기도 한다. 진철(眞澈, 870년) 어머니의 꿈에는 신승(神僧)이 푸른 연꽃을 전해 준다. 신승은 불보살의 연꽃을 전하는 대리자 노릇을 하면서도 장차 태어날 아이가 스님이 될 것을 암시한다. 법인(法印)의 태몽에서는 범승(梵僧, 행실이 단정하고 깨끗한 인도 승려)이 대리자 노릇을 한다. 그는 금빛 과자를 어머니에게 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경전 문구를 적은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인다. 원공(圓空)의 태몽에서는 흰 눈썹의 스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이는 대위덕명왕[아미타불의 변신]이니 잘 모시라"고 말한다. 그 말에 따라 어머니는 불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신채와 고기를 피하며 정성을 다해 태교를 한다. 원준(圓俊, 1530년)의 어머니에게도 한 스님이 찾아와 마니주를 건네준다. 마니주가 발산하는 빛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으로 인식되니, 마니주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환기한 셈이다. 혜암(惠菴, 1885년)의 어머니는 아기 배냇저고리를 만들 무명베를 전하는 노승이 부처님 대리자임을 알고 무명실을 공양물로 바친다.

대영(大英, 1903년)은 근대기 큰 선승이다. 그 분의 경우는 근대기에 들어오면서 불보살의 계시나 가피가 달라진 양상을 보여준다. 대영의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머리 없는 돌부처를 발견한다. 머리 부분을 찾아낸 아버지는 그것을 목 위에 올렸는데 약간 삐뚤게 되었다. 그래도 형상이 온전하게 된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 아이를 잉태한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개가 갸우뚱했고 성장한 뒤에도 머리를 똑바로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산이 좋고 그립다'는 말을 되뇌다가 결국 19세 때 설악산으로 출가한다. 대영의 이런 탄생담과 출가담은 꿈보다 현실에 다가가야 했던 근대기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선승의 탄생에 불보살이 관여하고 계시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4. 전생 스님의 이생 부모 자식 되기

앞의 태몽에서 '범승', '신승' 등은 불보살의 대리자로 현몽했다. 이와 달리 자기 사연을 지닌 스님들이 선승 부모의 꿈에 나타나 그 자식이 되기를 서원하는 태몽도 적지 않다.

진감국사(眞鑑, 774년) 어머니의 꿈에는 한 범승이 찾아온다. 범승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며 유리항아리를 준다. 어머니는 그날 잉태한다. 아기 진감은 태어나서 울지를 않았다. '소리를 녹이고 말이 없는 도의 싹'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된다. 7, 8세가 되자 밖으로 나가 노는데, 나뭇잎을 향으로 삼고 꽃 공양을 올린다. 자주 서쪽을 향해 꿇어앉았다. 그럴 때면 해가 저물어도 꼼짝하지 않았다. 적인선사(寂忍, 785년) 어머니의 꿈에는 향로를 든 호승(胡僧, 북방이나 서역에서 온 승려)이 찾아와서 침상에 앉을

사명·영허, 태몽에 불보살 나타나
선승 부모 꿈에 나타나 자식 서원
생 거듭해서라도 깨닫겠다는 다짐

뿐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꿈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반드시 법을 지닐 아들을 얻어 마땅히 국사가 될 것이다"고 말한 점을 보면 그 호승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적인선사는 강보에 싸여 있을 때부터 다른 아이와는 달랐다. 소란스러운 곳에서도 시끄럽지 않았고 조용한 곳에서는 고요했다. 노린내나 비린내를 맡으면 피를 토하고 짐승 죽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한다. 앉을 때는 결가부좌를 하고 사람에게 예를 표할 때는 반드시 합장을 한다. 절에 가서 부처님 주위를 돌 때는 배우지도 않은 범패를 잘도 부른다. 이런 점 역시 전생에 호승으로서 닦은 수행과 관련될 것이다.

지증대사(智證, 824년) 어머니의 꿈에 찾아온 거인(巨人)은 좀 더 복잡한 사연을 말한다. "저는 옛 승견불(勝見佛, 과거 일곱 부처 중 제일 부처)의 말세에 사문(沙門)이 되었지만 화를 낸 까닭에 오랫동안 용보(龍報)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업보가 다하여 다시 법손(法孫)이 되려합니다. 묘한 인연에 의탁하여 자비로운 교화를 넓히기를 원하나이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뒤 400일이 지나서 대사를 낳았는데 그날은 부처님 탄생일이었다.



사명대사 진영.

꿈속의 거인은 한 번 화를 낸 업보로 용으로 태어나야 했고 그 업보를 다하여 다시 스님으로 태어나려 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 지증은 오신채와 고기 냄새 탓에 한동안 젖을 먹지 못하고 울면서 구역질만 한다. 낭공대사(朗空, 832년)의 어머니 꿈에도 한 스님이 나타나서 "숙세의 인연을 좇아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그 뒤로 비린내 나는 육류를 피하고 정성을 다해 태교를 한다. 아기 낭공은 보통 아이와는 다른 기이한 골상이었고, 아이들과 놀 때도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고 풀잎을 따서 향으로 삼았다.

법경대사(法鏡, 879년) 어머니도 어떤 사람이 "아들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한 태몽을 꾸었다. 홍법국사(弘法, 915전후)의 어머니에게는 승가의 모자를 쓴 호승(胡僧)이 찾아와, "어머니, 제가 연성벽(連城璧, 楚나라 卞和가 얻은 귀한 구슬)을 드리겠습니다"며 구슬을 배 위로 던지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 홍법은 12살이 되자 출가할 뜻을 부모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그 태몽을 생각하고 허락한다.

적연국사(寂然, 952년) 어머니 꿈에는 두 사람의 스님이 등장한다. 한 스님이 자주색 가사를 입은 다른 스님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와서 "이 스님은 부석사 태대덕(太大德) 스님입니다. 당신에게 입태(入胎)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고기와 오신채 등을 금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 적연은 그 울음소리가 이상했고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울었다. 당시는 오랑캐가 곳곳에 숨어 있다가 약탈을 일삼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이 우는 소리 탓에 오랑캐가 닥칠 것이니 아이를 먼 곳에 버리도록 요구한다. 부모가 아기 적연을 숲에 버렸는데, 그날 밤 부모와 마을 사람들의 꿈에 "이 아이는 7일이 지나 울음을 그칠 것이니 데려와 길러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숲으로 가보니 사슴 두 마리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으니 다시 데려와 길렀다는 것이다.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 1215년), 벽송선사(碧松, 1464년), 경헌대사(敬軒, 1542년), 소요당(逍遙堂, 1562년)의 태몽도 이와 유사하다. 꿈에 어머니를 찾아온 스님의 사연이 약간씩 다르고 하는 말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 근본 취지는 원종(元宗, 869년) 어머니의 꿈에 나타난 신인(神人)이 하는 다음의 말에 압축되어 있다. "원컨대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부처님의 법손이 되고자 하여 묘연에 의탁하여 공경하게 자비하신 교화를 펴려합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깨달아서 '부처님의 법손'이 되고 중생제도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근대에 가까이 올수록 이런 점은 달라지니, 비구니 도인 만성(萬性, 1897년)의 경우에서 그 점이 뚜렷하다. 만성의 태몽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태몽이 아예 없었거나 있었어도 전해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만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색을 즐기고 탁월한 총명함을 보인다. 여느 규수와 다름없이 일찍 결혼했으나 남편과 사별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가 방한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한다. 그런데 만성은 출가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기가 장삼에 가사를 두르고 법당 앞을 소요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만성이 스스로 꾼 이 꿈의 내용은 그 전생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장차 자신이 출가하여 살아갈 모습이 미리 떠오른 것이라고 하겠다. 근대 이전 선승의 태몽과 비교할 때 스님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부모의 꿈을 통해 전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꿈을 통해 그 모습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근대 이후 태몽의 요소가 약화되거나 없어지고 그것을 대신하는 부분이 새롭게 생성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선승의 전생을 알려주는 태몽은 생을 거듭해서라도 깨달음을 얻겠다는 맹렬한 다짐과 간곡한 서원을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태고종 종정을 지내신 덕암 스님(德庵, 1913년)은 한 승원 작가와의 대담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며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깨달으려고 〈아미타경〉을 부지런히 염송하곤 한다고 말했다. 한평생 치열하게 수행했어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아상을 내려놓은 스님의 겸허함을 본다. 깨달음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생을 기약하는 간절함을 읽는다. 이 간절함은 선승 태몽의 그것과 다름없다. 깨달음과 중생구제에 대한 수행자의 비원은 우리 선수행사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면면한 전통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선승의 태몽에 깃든 이런 숭고한 정신을 확인하면서 나의 수행 자세를 반성하고 통렬한 참회를 한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❸ 기로국(棄老國)과 고려장

▶ 한줄요약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 고려장 이야기의 기원은 부처님 본생담인 '기로국연'에 있다. 여기서는 버려진 노인이 천신이 내린 문제를 풀어내 나라를 구하는 내용이다. 고려장이라는 용어와 민담은 있으나 이를 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고려장 'NO'… 노인 공경 이야기입니다

모든 동화와 설화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서도 읽고 나서 마음이 쓰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몇몇 동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고려장 이야기'가 첫 번째였다. 사전적으로는 고려에서 나이든 노인을 산이나 동굴에 버리는 장묘 행위를 '고려장(高麗葬)'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설 이외에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고증할 수 있는 고려장 관련 문헌이나 고고학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간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생이별 혹은 생매장 이야기는 어디에서 기원할까?

중국에 나이가 60세가 되면 기사요(寄死窯)로 보낸다는 설화가 있다. 60세가 되면 흙을 판 구덩이나 동굴에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았다가, 죽으면 다른 곳에 매장하는 풍습으로서 이러한 장소를 자사요(自死窯), 기사요(己死窯), 참동(參洞), 대사요(待死窯), 차사요(借死窯), 노인동(老人洞) 등으로 부른다. 기사요는 현재 고고학적으로 중국의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산시(陝西)성을 통과하여 흐르는 한수(漢水) 중류 지역에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중국에서 기사요 풍습이 발생하고 존재한 시기는 늦어도 춘추(春秋, BC 770~403)시대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시의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경제적 발전단계에서 피치 못할 생존방식이었을 것이다.(그림②)

문헌 기록으로 가장 이른 사례는 4세기 중반~5세기 후반 길가야(吉迦夜)와 담요(曇曜)가 한역한 〈잡보장경(雜寶藏經)〉 기로국연(棄老國緣)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인을 공경하면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일찍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좋은 이름이 멀리 퍼지며, 지혜로운 사람의 공경을 받는다. 먼 옛날에 기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노인을 버리는 법이 있었다. 한 대신이 국법을 어기고 늙은 아버지를 동굴에 숨겨 효도로 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천신(天神)이 기로국 임금에게 뱀 두 마리를 보내면서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라는 문제를 내었다. 문제를 잘 풀면 나라가 태평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칠일 이내에 나라를 멸하겠다고 말하자 임금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이 많았다. 그때 대신이 동굴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아버지는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가늘고 연한 물건을 뱀 몸에 놓아보면 알 수 있는데, 몸이 움직이는 것은 수컷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암컷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대신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임금께 말해서 암수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었고, 나라의 위기가 잘 해결되었다.

그러나 천신이 임금에게 또 다른 문제를 냈는데, 코끼리의 무게를 재라는 것이었다. 대신의 아버지는 큰 배를 만들어 코끼리를 배에 실었을 때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를 표시해두고, 나중에 그 표시한 곳까지 돌들을 채우면, 돌들의 무게가 바로 코끼리의 무게라고 가르쳐주었다.

그 후 천신은 임금에게 진단목(眞檀木) 토막 하나를 보내어 나무의 위와 아래를 구별하라고 했다. 대신의 아버지는 물에 띄워보면 뿌리 쪽이 잠기고 위쪽은 물 위로 뜰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에 천신은 겉모습이 똑같은 암말 두 필을 보내어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라고 했다. 대신의 아버지는 말에게 풀을 줘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어미는 반드시 새끼에게 풀을 밀어주어 먹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문제들을 모두 잘 풀어서 임금과 기로국은 무사히 위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천신의 보호까지 받게 되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대신에게 큰 공을 세웠으니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동굴에 숨겨둔 아버지에게 그 지혜를 얻어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임금이 어른의 지혜와 공로를 알게 되었고, 기로의 법령을 폐지시켰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그 아버지는 바로 나이며, 그 대신은 저 사리불이며, 그 왕은 저 아자세왕(阿闍世王)이요, 그 천신은 바로 저 아난이었느니라."

예로부터 노인 버리는 풍습 존재
부처님 본생담 '기로국연'서 확인
노인이 천신 문제 풀어 나라 구해
韓 '고려장' 민담도 본생담의 변주
어디에도 고려代 '棄老' 기록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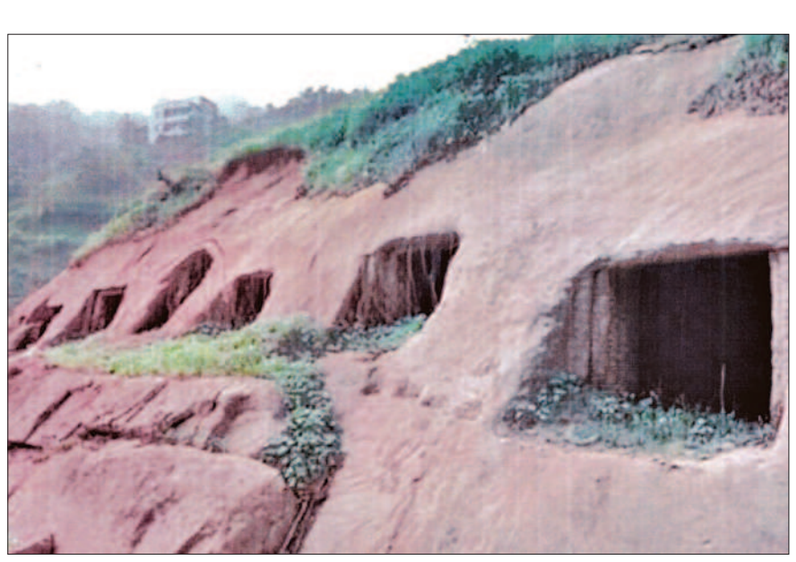
위의 '기로국연'은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 중에 어느 지혜로운 노인으로서의 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젊은이들에 비해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노인은 천신이 준 난제를 해결하고 아들인 대신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악습을 버리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일깨워주고 있다. 극적인 자기희생과 보시가 집약된 보편적인 전생이야기가 아닌 효를 매우 중요시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린 시절 전래 동화책에서 읽은 '고려장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70세가 되자 전해져오는 풍습대로 아버지를 헌 지게에 지고 내다 버리려고 산속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얼마간의 양식을 주고서 헌 지게와 함께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함께 따라왔던 그의 아들이 버려진 지게를 다시 가져가려고 등에 짊어졌다. 아버지가 낡은 지게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하자 손자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70세가 되면, 본인도 이 지게로 아버지를 버릴 작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효도를 다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사랑한 지혜로운 소년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노인을 버리는 악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그림①. 돈황 유림굴 25굴에 있는 〈노인입묘도(老人入墓圖)〉 벽화. 중당 시기(781~848)에 조성됐다.



그림②. 중국 후베이(湖北)성 무당산(武當山) 기사요(寄死窯) 전경. 춘추시대에 조성됐으며 연로한 노인을 이곳 동굴에 버렸다.

〈잡보장경〉의 '기로국연'과 '고려장 이야기'는 '기로(棄老)-노인을 버리다'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반대인 공경과 효로서 부모를 섬기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고려에서 기로법이 행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파된 것일까?

첫 번째, 중국에서 기원전 8~5세기에 행해졌던 기사요의 풍습이 후대로 전해졌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흔적을 중당시기(781~848)에 그려진 돈황(敦煌) 유림굴(楡林窟) 25굴의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벽화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열반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난 뒤 사바세계에 내려오신 미륵부처가 출현한 풍족하고 안락한 세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륵이 내려오실 시두(翅頭)성은 토지가 비옥하고 맑고 청명할 뿐만 아니라,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들은 값진 보물이 많아서 서로 탐하지 않는 곳이다.

화면의 오른쪽에 〈노인입묘도(老人入墓圖)〉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벽돌을 쌓아 만든 동그란 무덤 안에 앉아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노인이 묘사돼 있다. 그 앞에 한 어린아이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으며, 세 명의 여인 중 왼쪽의 여인은 노인의 손을 잡고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다. 그리고 붉은 관복을 입은 남자의 울고 있는 뒷모습과 물건을 든 하인도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은 미륵정토에서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근심 걱정과 질병이 없어 모두 8만 4천세의 수명을 누리길 바라며, 기사요 혹은 기로법과 같은 슬픈 이별이 없는 이상향의 세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 그림을 그린 시기에 기사요의 풍습이 행해졌을지도 모르며, 이러한 풍습에 대한 소문이 한반도에까지 전해졌을지도 모르겠다.(그림①)

두 번째,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어디에서도 고려장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유교는 지배적 정치사상이었기 때문에 효는 신성불가침이었다. 따라서 효의 보편적인 영향력 때문에 부모를 해치는 행위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다. 추측하면 '고려장 이야기'는 일제 식민시기에 전래동화 혹은 설화라는 형태로 우리 민족의 설화문학에 숨어들어온 것이 아닐까 한다.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시점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침략자들이 조선의 문화를 훼손하고 일본의 식민통치와 수탈의 정당화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서 쓰여진 〈나라야마 부시코(楢山節考)〉란 소설에 70세가 넘은 노인은 의식에 따라 버려져야 한다는 기로국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려장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혹은 설화가 아닌 근대기에 유입된 이야기로서, 한반도에서는 기로설화와 관련된 풍습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노인이었을 때의 전생을 말씀해주신 까닭은 생명을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뜻일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일일시호일

"통증서 벗어나 몽골 이주민 울타리 되고 싶어"

몽골 출신 아리오나씨 퇴글긴 교통사고로 목·허리 크게 다쳐
통역사 활동 등 이주민 지원 자처…사고 후 매일 끔찍한 고통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원자의 母情佛心 26 최명숙 '보리수 아래' 대표 어머니



▶ 한줄 요약

불교 장애인 단체 보리수 아래를 이끄는 최명숙 대표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걸음이 수월치 않은 딸을 어머니는 매일 업어 등교시켰다. 그러면서도 "네 스스로 걸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걸음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갔으면…"



그림 · 박구원

마을 사찰로 가는 구불구불 길은
걸음 늦은 딸에겐 좋은 연습장소
"스스로 걸어야 뭐든 한다" 강조
52세에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해
맏딸로 동생 키우며 어머니 역할

최명숙 '보리수 아래' 대표는 청정한 미소와 담백한 언어로 어머니를 추억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어머니께서도 저리 맑은 모습으로 딸을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순이 넘었다고 하는데 너무 해맑아 보여서 그랬을까. 그녀에게서 뇌성마비 장애로 걸음이 수월치 않은 초등학생 딸을 업고 등교를 시켰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됐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찻집에서 이뤄진 인터뷰 내내 가슴이 따뜻하고 뭉클했다. 어머니의 분별없는 사랑이 자식의 일생을 얼마나 견고하고 풍요롭게 하는지를 발견한 자리였다.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강원도 두메산골 집에서 난산으로 낳은 아이는 돌이 지나도 목을 잘 가누지 못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였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 말도 시원스레 하지 못했다. '어디 뼈가 잘못되었는가' 하고 엄마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만져보았다. 병원에 데리고 가니 의사가 '조산이라 발육이 늦어서 그러니 기다려 보라' 고만 했다. 더 크면 좋아지겠거니 했다. 태어나면서 뇌손상을 입어 뇌성소아마비라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야 알았다.

아이는 여섯 살이 되어서야 겨우 문지방을 잡고 일어섰다. 엄마는 마당에 싸리나무로 울타리를 쳤다. 울타리를 잡고 놀다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는 훈련도 되겠다 싶어서였다. 까치발 걸음으로 울타리를 짚고 마당 둘레를 몇 번씩 돌며 놀았다.

사립문과 나무 울타리, 집 앞의 개울과 징검다리, 새들이 집을 지었던 뒤뜰, 김매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놀던 고구마 밭은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기 어려웠던 딸에게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자연스레 물리치료 장소도 되었다.

아홉 살이 되어서야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녔던 2층 건물의 작은 초등학교였다. 너무 가벼운 딸을 업고 젊은 엄마가 말하곤 했다.

"엄마는 다른 건 안 바래. 네 걸음으로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 너와 같이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저 아래 절에 사시는 스님께서 그러셨어. 모든 것은 다 네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바른 마음을 간직하고 살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너에게 이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하셨단다."

이 말은 장애로 인해 몸이 자유롭지 못한 딸을 가진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다짐한 평생 기도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간절한 기도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아이의 놀이터가 또 하나 있었다. '지금 네 발로 걸을 수 있어야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던 어머니는 걸음이 몹시 더딘 딸의 손의 잡고 절로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오래 걸었다. 훌륭한 걸음 연습이 되었다. 법당에 내려놓으면 아이는 뒤뚱거리면서도 법당 안을 돌아다녔다. 부처님의 얼굴을 만져보려고 불상에 손을 뻗는 아이를 제지하는 어머니에게 그냥 놔두라 하시던 스님의 따뜻한 미소, 절 앞마당으로 따사롭게 내리쬐던 햇살들이 불교에 친숙하게 다가가게 했다.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 들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매일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시다가 농사철이 되자 매일 그럴 수가 없어서 하루는 개울만 건너 주고 혼자 가게 했나봐요. 몇 번 넘어지더니 혼자 잘 가더래요. 그날 운동장에 서서 얼른 들어가라며 손짓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삼십대의 어머니가 장애인 딸을 키우며 느꼈을 아픔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다니던 스님께 맡겨 출가를 시킬까 생각해보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춘천의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전근하신 아버지를 따라 식구들 모두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어머니는 딸 하나와 막내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1남 4녀가 되었다. 어머니는 따로 학교에 찾아가 장애가 있으니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 걸음이 이상하다고 놀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을 붙들고 '네가 참으렴' ,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심히 대하는 게 강하게 아이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은 학교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아이로 만들었다.

동생들이 장애를 가진 언니를 무시하지 않도록 맏딸에게 짐짓 심부름을 시켰다. 설탕 등 소소한 물건이 떨어지면 맏딸을 불러 구멍가게에 가서 사오도록 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 가게 주인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언니가 몸이 불편해도 너희들처럼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남들이 무시하는 것보다 동생들이 무시할까봐 염려했던 것을 나중에 커서 알았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마라."

그래서 체육시간에도 달리기는 했고 철봉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때만 해도 학교 전체에 소아마비 학생이 서너 명, 뇌성마비 학생은 혼자뿐이었다. 그런데 악동은 어디에나 있는 법, 화장실까지 따라와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속은 상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가족과 착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다정한 친구가 나타났다. 가방도 들어주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준비물을 나누어 주었다. 놀리는 아이 열 명에 대한 속상함이 그 착한 한 친구가 상쇄시켜주었다. 불보살님이 보내준 선물 같았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받는 놀림보다 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은 선생님들의 태도였다. 읽거나 말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아예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럴 때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곤 했다. 학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른 중 · 고등학교 때는 더 했다. 아예 무시하고 발표를 시키지 않는 선생님도 있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구나'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선생님도 있었다. 아이들의 시선보다 선생님들의 그런 태도가 심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 그럴 때 위안을 준 것이 불교 학생회 활동이었다.

가끔 하루가 형편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힘들 때는 동대문에 있던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조계사에 다녀오곤 했다. 포교사로 유명했던 무진장 스님에게 수계한 곳인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가라앉곤 했다.

지도법사 김재영 선생님이 빌려준 〈불교성전〉은 다 읽지 못했다는 핑계로 여태껏 반납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 책은 재산목록 1호로 간직하고 있다. 불교학생회에서 불교를 배우고 마음공부를 했던 것이 훗날 장애인 불자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어머니께 털어놓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대학 면접시험을 볼 때였어요. 시험관이던 교수님이 받아쓰기를 시키듯 문장을 불러주며 글씨를 써보라고 하더군요. 이 학생이 글씨나 제대로 쓸 수 있으려나 하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저를 아쉬워하던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 마디도 안했느냐' 고 하셨어요. 그 뒤로는 대학에 가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죠."

대학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송통신대에 진학해 문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뇌성마비 모임을 이끌면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다가 등단해서 시집을 내었는데 어머니는 글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았다며 무척 기뻐하셨다. 글쓰기가 삶의 모진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딸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 안심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쉰두 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가족과의 너무 이른 이별이었다. 서른 살의 맏딸은 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평소 '장애가 있는 큰언니, 큰누나여도 너희들이 어려울 때 의논하는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씀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 후로 최 대표는 동생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생들 학비도 보탰고 혹시 결혼해야 할 동생들에게 자신의 장애가 누가 될까봐 독립해서 살았다.

최 대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5년 동안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일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2005년, 장애인 불자모임인 '보리수 아래' 를 만들었다. 전국에서 모인 뇌성마비, 소아마비 장애인 불자들이 월 1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연 1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문학 작품집과 음악 작품 제작도 했다. 회원들을 설득해 재적 사찰 등록하기와 사찰마다 장애인 고용 추진 운동에도 주력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발원했던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뤄진 셈이다.

"네가 장애를 가져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던 어머니였어요. 고생만 하시다가 가셔서 마음 아파요. 중학교 때 등교 버스에 올라 제 가방을 내려놓고 내리시다가 넘어진 적도 있어요.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디 그것뿐이었겠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한 최 대표의 고백이 모든 자식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라는 존재 앞에 서면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우리 자식들의 마음.

어머니의 등에 업혀가던 등굣길/ 그 길 위의 나무들과 모든 새들 꿈을 노래했었지/ 어린 나는 잘 몰랐었어/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알고 계셨지/ 바람 속에서도 나의 꿈이 커갈 것을

-최명숙의 〈어머니의 노래〉

〈작가〉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모든 선근 심어 공덕 키운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⑥ 십대수(十大受)

"법의 주인이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증명해 주시옵소서. 오직 부처님께서는 증명해 아실 것이오나 여러 중생들은 선근(善根)이 얕은 탓으로 혹 의심을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이 10가지 큰 서원 십대수(十大受)는 지극히 어려운 까닭에 저들이 혹 긴 밤에 의로운 이익을 얻지 못하여 안락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안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말씀드리오니 제가 이 10가지 서원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서원으로써 대중 속에 마땅히 천상의 꽃이 비처럼 내리며 천상의 미묘한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허공 속에서 가지가지 천상의 꽃이 비처럼 내리고 미묘한 음성이 나왔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대가 말한 것과 같아 진실로 다르지 않느니라."

대중이 모두 천상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 미묘한 음성을 들어 가지가지 의혹이 모두 없어지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언제나 승만 부인과 더불어 같이 만나 행하는 바도 또한 같아지기를 발원하였다. 세존께서는 대중이 모두 그 발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기하셨다.

10가지 서원을 발한 승만 부인을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다. 상서로운 길상이 나타나 천상에서 꽃이 쏟아져 내리고 대중의 의혹을 풀어준다. 〈법성게〉의 "보배의 비가 내려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허공에 가득하다(雨寶益生滿虛空)"는 말처럼 승만 부인의 서원에 꽃비가 내린 것이다.

이를 본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십대수의 원을 실천하여 승만 부인과 같이 되기를 발원한다. 〈승만경〉은 여러 사람들이 발원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있다. 여기에도 묘한 상징성이 있다. 인간의 염원이 진실하면 그 염원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은 믿는 대로 보이게 되며 아는 것만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큰 서원을 발하는 진실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쪽으로 긍정되어지고 조화되며, 통일되는 근본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중생의 업이 충돌하여 온갖 부조리하고 이율배반적인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세상의 근본진리 자체가 잘못되는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수기는 이 세상을 긍정해주어 궁극적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의 마침표이다. 승만 부인의 수기에 이어 대중에게도 발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기를 내린 것이다. 이는 선근이 성숙되어 자리이타의 공덕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선근을 심어 공덕을 키운다(種諸善根 長養功德)"는 불교의 유명한 격언(格言)이 있다. 선근이란 선을 자라게 하는 뿌리라는 뜻으로 좋은 과보를 초래하는 좋은 업인(業因)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본(善本) 혹은 덕본(德本)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탐(貪), 진(瞋), 치(癡) 삼독(三毒)이 사라진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를 삼선근(三善根)이라 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중아함경〉에 설해진 내용에 보면 사리불이 구치라에게 묻는다. "어떤 것이 선을 아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선근을 아는 것입니까?" 구치라가 답하기를 "몸으로 짓는 훌륭한 행위가 선이며, 입과 뜻으로 짓는 훌륭한 작용을 선이라 하며, 탐욕이 없는 것이 선근이며 성냄이 없는 것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선근이라 합니다.

선과 선근을 알면 지혜를 성취하여 정견을 얻고 정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고 하였다.

〈아함경〉 등에서는 이렇게 삼독심이 없는 것을 선근이라 했다. 〈대방등대집경〉에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대승경전인 〈열반경〉에서는 보살의 사무량심인 자(慈), 비(悲), 희(喜), 사(捨)가 모든 선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고, 〈해심밀경〉에서는 "모든 악법을 짓지 않고 모든 선법을 부지런히 닦고 익혀 선인(善因)을 훈습함으로써 선근을 심는다." 하였다. 따라서 승만 부인처럼 서원을 발하는 것은 최대의 선근을 심는 일이 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세음보살 서원 믿는 것부터 시작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㉙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견해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지혜를 완성하고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며 일체중생을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 중생들의 귀의처입니다.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면 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가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대승보살도를 완성하여 궁극에는 성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한다면 현실적인 괴로움을 제거하고 지혜를 얻어 모두가 행복한 불국토 건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귀의처가 될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으로 대자비를 실천하며 중생을 위해 윤회 세계에 끝없이 원생(願生)을 하시는 우리들의 구원자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을 이룬 부처님이지만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원하겠다는 대비심과 서원으로 갖은 변화력으로 화신하며 중생이 고통 받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태어나 우리들과 함께 살며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일체중생을 교화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귀의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신앙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중생구제의 서원과 대자대비심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의 보살들은 스스로 서원이나 대비원을 세워 자발적으로 지옥을 비롯한 삼악도에 태어나십니다. 대보살은 이미 높은 수행을 닦아 수승한 경계에 계시지만 중생을 구원하려는 서원과 대비심으로 중생이 고통 받는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부처님께서도 법장비구로 수행할 당시 48가지 본원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극락교주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대자대비하신 이타구세의 원력과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중생들의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음신앙을 신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음신앙의 신행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행은 관련된 경전을 수지 독송하거나 서사하거나 명호를 반복해서 외우는 염불의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신앙의 신행은 세간적 가피를 구하는 목적으로부터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구원력을 똑같이 닮으려는 방향까지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보리심과 대비심에 대해 올바르게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수행 덕목입니다.

〈법구경〉에서 "믿음은 능히 도를 얻고, 법은 열반을 얻는다" 가르침에서 보듯이, 초기불교 시대 때부터 믿음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님이 세운 서원과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구원하시는 구제력을 믿는 2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음신행의 첫 시작점은 관세음보살의 서원과 구원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행자가 먼저 관세음보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갖춰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칭명염불이나, 간경 등의 실천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대비심에 대한 믿음은 관음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⑥ 그 모습 그대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여섯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겨난다. '나의 자아는 있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나의 자아는 없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무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 또는 이와 같이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생겨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견해의 심취, 견해의 정글, 견해의 험로, 견해의 왜곡,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결박이라고 부른다. 〈모든 번뇌의 경〉

과거와 미래,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에 우리는 없다. 어떤 곳에 우리가 있다면 모든 이 길을 온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지도를 그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 지도가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 없이 그저 그 자체가 된다.

우리는 과거에 무엇이 되어 본적이 없고, 무엇이 변해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다. 미래세에 무엇으로 되지도 않고, 미래세에 어떻게 있지도 않다.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며, '나는 어떻게 있다' 라는 특정한 형태가 없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무아를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무아를 체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냥이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때에 따라 자신의 편리를 위해 쓰는 그냥이 아니라 모든 것에 쓰는 그냥이다. 성품이 지금 이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만 없으면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생각이 들어가면 표현력이 왜곡된다. 그냥, 있으면 스스로가 따로 모양을 가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길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아무것으로도 규정하지 않으려고 오는 길이다. 규정된 것은 전부 생로병사를 갖는다. 생로병사 자체가 고(苦)이므로,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를, 규정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고 빠르게 지켜본다. 내 모양을 고집하면서 생로병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나의 모양을 주장하면서 모양 없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규정하려고하는 것은 전부 사변적인 생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견해의 심취, 정글, 험로라고 표현하셨다. 생각 속은 가시덤불로 가득한 길이 없는 정글을 뚫고 가는 것과 같은 험로이다. 바른 견해의 길이 없는 생각은 오온이라는 실체하지 않는 '아(俄)'가 있어 왜곡된다. 그래서 왜곡을 어떻게 해보려는 견해의 몸부림을 치지만 생각은 이길 수 없다. 생각은 모든 나의 발걸음을 다 묶어버리는 것과 같다. 스스로의 자승자박이 견해의 결박인 것이다.

어째서 무(無)라고 했지? 어째서 무(無)라고 했지? 어째서 무(無)라고 했지?

이때 말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앎. 대답하려고 찾는 그것에 대한 앎.

입을 열 수 없는 그때, 모든 문이 없는 줄 안다. 참으로 별것 없는 그 답.

안다는 것도 없었고 모른다는 것도 없는 그것. 그저 대답해야 하는 내가 있는 줄 아는 그 착각. 그때 어둠이 그치고 장애 없는 시야가 확보된 그것. 다시 봐야 할 것도 다시 들어야 할 것도 없는 그것.

말해본들 입을 열지 못하고 쓸데없이 노잣돈만 빼앗긴다. 모르는 이와 동문서답. 그래도 눈을 쳐들고 위로 향하니 어긋남 속에 겨우 제자리.

님아, 님아, 걱정마오. 그대에게 모자람은 없으니 다음에는 눈을 아래로 향할 것이니, 그때 한 번 일심이 되어 봅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은혜사
• 주 지 : 만법 (속명 : 김남수)
• 주 소 : 김해시 가야로497번길 10~11(동상동)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5호 | 17 | 전면광고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으며 늘 고요하고
잔잔하다. 마음에 평정을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卍佛寺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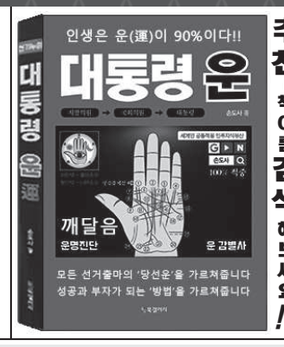
❖삼재 방생풀이 음력 입춘 - 삼진날까지 비바람 불면 연기, 매일 11시 비구니스님 성지 봉사 개회
❖쥐·용·원숭이 1인 5만원, 양초 3천원, 이름 써드림, 공양미 1kg 2천원
❖서울 전철 아산신창행 - 도고시내버스 - 신통리
❖농협 351-0881-7941-93 조계종 만불교
❖아산시 신통길 192-21 (지장보살 모신 절)

접수문자 010-3410-0004
041-544-4441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 • •
010-4435-5660

• •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청주 상당구 봉은사
• • •
010-5883-2255

• • •
공양주
모십니다
강원도 양구 흥덕사
• • •
010-5049-1533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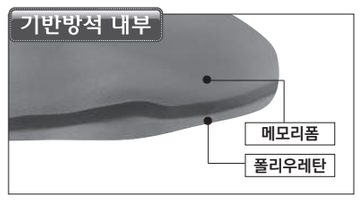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③ 현대인 질병

인체 속 독성 제거하는 약차

지난 회차에서 폴리페놀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이가 신체에 이로운 각종 성분, 효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다양한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치유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과 식습관이다.

일찍이 한의학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병이라면, 고치는 약도 이 세상에 있다고 여겼다. 그런 이유로 산야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약재가 된다고 믿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현명한 사람은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질병이 생기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찍부터 한 분야에 천착한 이들은 이른바 바르고 건강한 생활 자연요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건강을 챙겼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무병장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무던히 애를 쓰고 절제하고 비우려 애를 썼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 거리에는 한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즐비하며, 한 집 걸러 커피숍,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가게와 버터, 과당,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빵집과 배달음식 가게들이 넘쳐난다. 그렇게 변화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의 음식들로 인해 간이 병들어 해독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 아마 바위들에게도 매일 이 음식을 가져다 버리면 바위도 부서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러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의 위해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데다 약마저 오남용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등으로 현대인 질병 늘어
병에 걸리는 원인부터 알고 대처해야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정화와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의 장기는 간과 신장이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가이아 이론으로 불리는 이 가설은 지구는 지구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조절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가이아라는 큰 지구의 자전 능력 속에서 존재하며 수행한다. 간혹 이유 없이 산불이 나곤 하는 것은 산소 농도가 너무 짙을 때 수많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아의 행동이다. 숲이 존재하고 강과 바다가 존재하는 것 모두가 살아 있는 지구가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지구가 그러하듯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장기와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육식을 삼가고 단식과 절식하며 더 나아가 가장 빠른 해독법은 간과 신장 혈관을 디톡스하는 일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를 따뜻하게 수시로 마시는 일이다. 대사성인 질환의 힘든 상황에서도 2주 과정을 차톡스(차를 마시는 디톡스 방법) 하고 나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당의 수치가 현저하게 정상 수치로 내려오는 놀라온 체험을 마음정원을 찾는 분들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살피다보니 건강한 우리의 전통 식생활 문화는 사라지고 현대인들의 질병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과 장년까지 '인스턴트' 를 즐기고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의 생명줄을 온전히 대기업이 만든 달고 중독성 강한 음식들을 끊임없이 먹고 마신다. 인스턴트식품에 첨가된 합성보존료인 방부제, 표백제, 인공감미료, 가향처리로 인해 암 발병이 촉진될 수 있다.

고단위 단백질 섭취 시 암세포가 증식되고, 이미 암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DNA가 파괴돼 신체가 많은 해를 입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인스턴트식품 섭취량이 증가할 경우 DNA의 손상도 증가한다는 학계의 발표가 있었다. 인스턴트 음식은 처음에는 설사를 유발하며 방부제의 물질이 첨가된 음식은 산성이기 때문에 섭취하면 위와 식도가 아플 수 있다. 이물질은 소변 산성화로 일부 약물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첨가물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다보면 반발성 괴혈병, 철분과다 축적으로 간 손상 등 합병증을 초래하기도 하며 특히 혈색증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하여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신장에 쌓여있는 음식과 음료의 독성을 제거하는 데는 차만한 음료가 없다. 시중에서 파는 탄산, 과즙음료, 혼합차, 이온음료, 추출음료, 커피, 우유에도 들어간 추가적 함유 물질 역시 콜라겐 합성에 의한 지방세포를 성장시킨다. 이처럼 우리가 가까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필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한국의 우리 약재와 약초인 약차를 자연에서 채취하며 긴 시간의 법제 시간을 거쳐 인고 끝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넥타르인 한국의 약차와 한방차를 만들고 있다. 필자가 아는 이들만이라도 더 이상의 무서운 화학적 합성의 차의 물질을 섭취시키고 싶지 않고 많은 분들의 질병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우리약차를 연구중이다. 차의 일일 적당 섭취량은 여성 2.5리터, 남성 2.8리터이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건강
③ 미네랄의 섭취와 배출

다양한 미네랄 함유 소금 먹어야

인류는 언제부터 소금을 먹기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인류의 탄생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몸 안에 소금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살아있기 때문이다. 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 바닷물 속에는 막대한 양의 물과 소금이 들어 있고 그 물과 소금을 기초로 해서 생명이 탄생하였다. 그러한 인연으로 모든 생명은 몸 안에 작은 바다를 간직하고 살아간다. 우리의 체액이 그렇고 혈액이 그렇고 우리 몸 뼛속의 미네랄이 그렇다.

몸속 바다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소금을 섭취한다.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고, 들짐승도 먹는다. 그런데 먹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소금은 몸에 쌓이고 쌓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몸은 소금으로 꽉 차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먹은 모든 것은 섭취와 사용과 배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5대 영양소로 불리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미네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몸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분해되어 최종 산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배출된다. 그중의 일부 식이섬유 등은 분해되지 않고 찌꺼기와 함께 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이들 영양소는 먹는 양과 배출량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부는 살로 우리 몸에 축적된다.



미네랄 섭취와 배출 균형 이뤄야
채식하면 칼륨배출 위해 소금섭취

미네랄은 어떨까? 우리가 섭취한 미네랄도 우리 몸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일부는 축적된다. 뼈가 되기도 하고 치아가 되기도 한다.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땀으로, 눈물로, 콧물로, 침으로, 소변 등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된다. 그 배출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각종 노폐물을 함께 배출시킨다. 제일 많이 배출되는 과정은 소변을 통해서이다. 이처럼 미네랄은 섭취와 배출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생명을 살아있게 하고 또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체내에 들어온 만큼 잘 나가주면 좋으련만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몸에 쌓일 수밖에 없다. 지방이 쌓이면 살이 찌고 그러면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미네랄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네랄이 몸에 쌓이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미네랄이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도 문제인 것이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해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면 살이 찌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네랄은 운동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 미네랄은 다른 음식처럼 에너지를 만들고 분해되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다. 분해되어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배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잘 배출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네랄을 고르게 섭취하면 된다. 그 이유는 미네랄은 서로서로 짝이 되어 배출되는 특성 때문이다. 나트륨을 배출하려면 칼륨이 있어야 하고, 칼륨을 배출하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한다. 몸에 쌓인 중금속도 각각을 배출시키려면 다른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인류가 소금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시기는 농경사회가 시작될 무렵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소금을 먹어왔지만 여기서 '본격적' 이라고 한 표현은 체계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농경사회 이전에는 사냥을 통한 육식이 주된 음식 섭취였다. 고기에는 일정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그러니 그 고기 속의 소금으로 나트륨 일부를 섭취하고, 채집을 통해 먹는 과일 등에서 일부의 칼륨을 섭취하여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농경사회가 되면서 농작물 섭취가 늘어나게 되고 농작물 속의 풍부한 칼륨이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몸속에 칼륨이 쌓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풍부한 소금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또 현대에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에 포함된 칼륨의 섭취가 늘어난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소금섭취를 줄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트륨의 섭취가 적어지면 칼륨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채식을 주로 한다면 칼륨의 배출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소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맞다. 그래야 몸 안에서 미네랄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극단적인 채식을 해서 건강을 잃은 많은 사람 중에는 미네랄 불균형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나트륨도 먹고 칼륨도 먹어야 하지만 이왕이면 다양한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 있는 소금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중요한 일을 하고 빠져나가는 수십 가지 종류의 미네랄이 짝이 없어 배출되지 못한다면 그처럼 나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채식을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면 미네랄 소금 또한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주)오씨아드 이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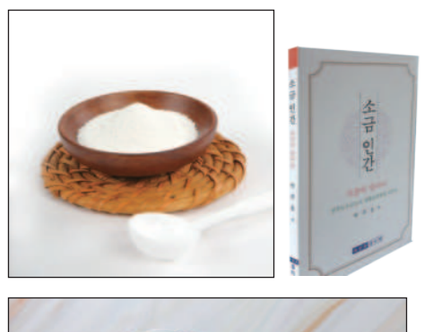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 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❷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줄요약
의 · 과학 발달따라 변화해 온 육체의 '죽음' 개념, 이젠 영적 영역 확장할 때다.

죽음의 정의, 마음 영역 확장하라



현대사회의 죽음 정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끝, 종말, 극락, 천국, 내세, 잠, 슬픔, 불안, 공포 등 죽음과 연결된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사실 죽음이란 말은 누구나 다 알지만, 막상 죽음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명확하고 신속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죽음을 알아가는 첫 단계 혹은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정의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죽음의 정의'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定義)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단어 등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며 보통 간결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어떤 단어나 의미가 궁금할 때면 사전을 뒤적거린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죽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시작이다.

사실 죽음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죽음을 간단히 정의하면 '생물의 생명이 끝난 현상'일 뿐이다. 생물은 '살아있는 어떤 것'이며, 생명은 어떤 것이 '탄생하고 살아가다(生), 수명(壽命)이 끝난 것'이다. '생(生)'이라는 글자에는 '탄생' 뿐 아니라 '살아감'의 뜻이 함께 있으며 '명(命)'은 '수명'으로 '살아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생명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어느 기간 동안,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를 일컫는다. '한 생명이 태어나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이 지속되는 기간'이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드러낸다.

보다 상세히 죽음의 정의를 알아보면 죽음의 종류는 크게 자연사와 외인사로 나뉜다. 자연사는 질병을 얻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가 쇠약해져 사망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이다. 반면에 외인사는 자동차 사고, 재해, 살인처럼 어떤 사건이나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이 급작스럽게 앞당겨진 경우들,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이 외인사의 예이다. 하지만 자연사든, 외인사든 공통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 결국 육체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망의 원인으로는 장기 손상, 질식, 심장이나 폐기능 정지, 실혈(失血: 다량의 혈액 상실) 등이 있다.

보통 현대 사회의 죽음은 의학적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의학적 죽음 정의는 심폐사, 뇌사, 세포사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심폐사는 말 그대로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된 것, 뇌사는 뇌 기능이 멈춘 것을 말한다. 세포사는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세포의 죽음을 뜻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 장기인 심장, 폐, 뇌 등의 기능이 정지하면 생명 활동이 중지되고 이후 세포들이 죽음에 이른다. 심장이나 폐가 멈추었다고 즉시 모든 세포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판정 이후 각막, 뼈 등의 장기이식이 가능하다.

죽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호흡과 심장박동의 정지로 결정되었다. 심폐기능이 멈추면 맥박, 혈류, 숨이 멎고 이후 위장, 간과 같은 다른 모든 인체의 생체기관들의 작동이 멈춘다. 그러나 폐과 심장이 멈춘 것이 죽음이라고 단순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호흡 정지와 심장의 정지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 쉽지 않은 고민이었다.

죽음의 판정이 심장사로 자리 잡으면서 사망을 판정하기가 간단해지는 듯했으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죽음의 기준이 새롭게 생겨났다. 인공호흡기, 인공심장개발 같은 의과학의 발달은 인간이 심장과 폐 등 인체를 자발적으로 컨트롤하는 '뇌'의 도움이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의과학의 발달은 '뇌사'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죽음 기준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뇌가 죽으면 인간은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상실한다. 첫째는, 소뇌와 뇌간(brainstem)에서 수행되는(호흡, 맥박 등을 지속시키는) '생명 유지 기능' 상실이고 둘째는, 대뇌피질에서 수행되는(사고나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기능' 상실이다.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뇌간에서 수행하는 자율적인 생명 유지 기능이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숨 쉬는 것을 깜박했네' 또는 '심장을 뛰게 해야지'라고 마음먹지는 않는다. 뇌의 기능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호흡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데 뇌사는 이러한 기능이 중지된 것이다. 호흡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심장을 멈추거나 다시 뛰게 할 수는 없다. 뇌간의 기능은 우리 의식의 통제를 넘어선다. 호흡, 맥박, 혈압 등 생명 유지에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이 파괴되면 뒤이어 자연스럽게 호흡, 심정지로 이어지고 결국 심폐사하게 된다.

육체적 영역의 죽음 개념
의학 발달로 새 개념 도입
영적 죽음의 정의 필요해

그러나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연장장치로 인해 인위적인 생명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뇌사라는 새로운 죽음의 기준이 탄생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대의 죽음 정의는 심장과 폐, 뇌의 비가역적(非可逆, irresversible)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정지이며, 죽음은 육체적 영역에 주로 국한되어 있다.

불교의 죽음 정의

의학적 죽음 정의가 현 사회의 기준이긴 하지만 죽음을 완벽히 정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학적 정의는 주로 육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인간은 오로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보는 죽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초기 불교 경전인 〈상윳따니까야(Saṃyutta Nikāya)〉에서는 다음과 같이 죽음을 정의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종류의 중생들의 없어짐, 옮겨감(cavanatā), 파괴, 소멸, 죽음, 생명의 끝, 쌓임의 파괴(khandhānaṃ bhedo), 신체의 버림, 생명 기능의 단절,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경에서는 죽음을 의학적 정의와 유사하게 생명과 신체기능의 파괴나 중단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옮겨감(cavanatā)'과 '쌓임의 파괴(khandhānaṃ bhedo)'에서 불교의 특색이 드러난다. 옮겨감이란, 불교적 윤회관을 보여주는 말로 현생에서 내생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쌓임의 파괴'는 '오온(五蘊, pañca khandha)의 파괴'를 의미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불교의 죽음 정의를 잘 드러내는 지점이다. 한역 경전에서도 죽음의 정의를 오온과 연결지어 정의하는데, 〈증일아함경(增壹阿含)〉에서는 "죽음이란 다섯가지 결합이 나누어져 오온[五陰]을 버리고, 명근(命根)이 끊어져 파괴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죽음을 색 · 수 · 상 · 행 · 식의 결합이 끊어져 생명 기능이 파괴된 것이라 정의한다.

〈맛지마니까야(Majjhima Nikāya)〉에서도 "죽음이란 수명(āyu), 온기(usmā), 식(viññā)의 해체이다"고 죽음을 정의한다. '수명'은 생명의 지속 기간, '온기'는 체온을 뜻하며 이들은 육체의 영역에 있다. 수명은 불교의 업사상, 인과법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수명을 단축하는 업을 지으면 생존기간이 짧아지고 장수할 업을 지으면 천수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체온의 상실은 현 사회의 심폐사처럼 당시 상황에서 죽음을 판별하는 육체적 영역의 기준일 것이다. 수명, 온기, 식 중에서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식(識, viññā)이다. 오온의 요소 중 하나인 식은 마음의 영역에 있다. 이처럼 불교는 식과 오온을 죽음과 연관 지어 정의하는 특징을 가진다.

어떤 대상을 마주하고 느낌, 관념, 의도 같은 마음 작용이 일어나기 전 선행되는 요건은 대상을 감지, 식별, 판단하는 인지 작용이다. 인지 작용과 부합되는 불교 용어는 '식'이며 이는 인지(cognition), 의식(consciousness)으로도 표현된다. 다시 말해 식은 마음 작용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중추인 것이다. 식을 통해서 괴로움, 즐거움 등의 느낌, 의도나 의지 등의 후 단계가 진행된다.

불교는 마음을 다루는 종교이자 철학인데, '식'은 무명에서 시작해 삶과 죽음, 인간 고통의 생성과정을 밝히는 '십이연기(十二緣起)'의 12단계 중에 세 번째에 위치하며 또한 식은 유식불교에서 인간의 인식작용을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육근(六根)과 관련지어 육식(六識: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식은 인간의 마음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불교적 용어이다.

타종교나 사상에서는 죽음이 육체와 정신의 분리라고 설명하면서 육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영혼(soul), 정신(spirit)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같은 단어들에 식의 일부 의미가 연결될 수도 있다. 불교적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윤회라는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파도와 같다. 무명이 타파되기 전까지 끝없는 순환을 반복하면서 죽음과 탄생은 반복된다. 고통스러운 죽음은 1회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버려지고 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육체 말고 윤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영혼,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덧붙여, 불교에서는 무아(無我)를 강조하며 영원불변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복되는 죽음, 윤회란 '식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불교의 죽음 정의에서는 '식'과 '오온'을 함께 다루는데 오온 중 육체적 요소는 색 하나뿐이며 4가지는 모두 마음의 영역에 있다. 따라서 불교적 죽음 정의는 육체보다는 마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죽음 극복의 실마리 또한 '마음'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불교에서도 죽음을 생명 활동의 중지, 체온의 상실로 정의하긴 하지만 마음에 비중을 두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현 사회에서 죽음을 심폐사, 뇌사와 같이 육체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는 대비된다. 보다 완벽한 죽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의학적 정의와 불교적 정의를 함께 아울러 육체와 마음 모두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정체를 알아가는데 시작이 되는 것은 정의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정의(定義)란 어떤 존재를 명백히 밝혀 규정함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간결한 표현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간결하게 어떤 존재를 규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불교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존재의 정의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거대한 순환구조를 가진 자연의 섭리에 걸맞는 참 삶일까. 죽음은 오로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현상일까. 죽음의 정의를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삶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져준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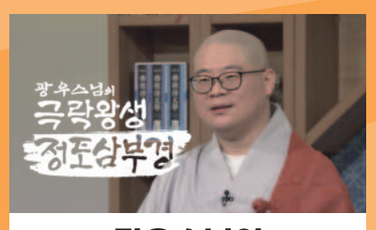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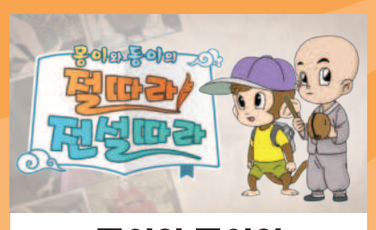
불기 2566년

개편프로그램안내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광우스님의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매주 (월, 화, 수) 07: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매주 (월) 09:30, 21:30 / (화) 23:2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매주 (월, 화, 수) 19:30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매주 (목, 금, 토) 08:30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6:00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매주 (목, 금, 토) 19: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75 호 현대불교
2022년 2월 16일(음 1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그냥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놓아라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같이 한자리하는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날이 추울 때는 마음이 상당히 안됐었는데요. 그러나 춥든 더웁든 구름 지나가듯 하는 것이 한 철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한 철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소에다 비유를 하고 코끼리에다 비유를 해서 "첫 번째는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두 번째는 밥을 굶기고, 세 번째는 몽둥이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소고삐를 쥘 양으로 거선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고삐를 쥐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말을 삼가서 하고 말을 걸러서 하고, 항상 남을 섭섭지 않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 항상 내면의 자불(自佛)을 쥐고서 가는 거와 같은 겁니다. 소고삐라는 건 자기의 그 인연줄, 즉 말하자면 바로 자기의 근본 자리의 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고삐로도 비유가 되고 그럽니다.

또 '두 번째, 배가 고파도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은 자기가 자기를 아무거나 집어먹지 못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먹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일체를 그저 되나 안 되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은 걸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밥을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굶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채찍질을 한다' 이러는 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길이 잘못 들어지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남을 아프게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소로 비유를 해서, 옛날에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짓대겨 놓으면 남에게 여간 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소로 비유한다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고 남한테 아프지 않게 하는 모두가 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잘못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이 계가 아니라 잘하라는 것도 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모든 것을 해 나가는데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길을 걷는 데는…, 예를 들어서 과거를 모르면 현실을 보고, 미래를 모르걸랑은 또 바로 현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부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하기도 하지마는 우리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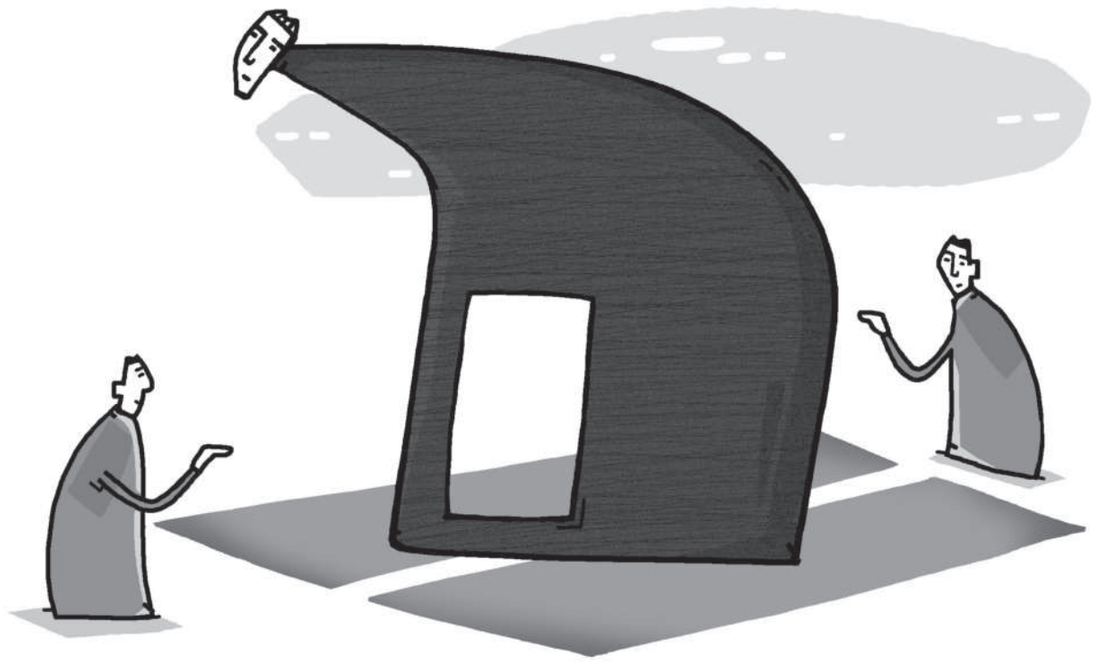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떨 때에는 여러분한테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와서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가 좀 되신 것 같애요. 우리가 둘이 아닌 도리를 여직껏 공부를 하면서 걸어왔죠.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 뜻도 아실 거예요. 옛날 남전 스님이 고양이 죽인 일입니다. 서당 동당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남전 스님이 그것을 딱 쥐고선 "말대답을 해라. 무슨 연고로다가 그렇게 싸우는 건지, 또 무슨 이유로다가 고양이 하나를 놓고 싸우는지, 만약에 너희가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이 고양이를 살리고 대답을 못 할 것 같으면 고양이는 죽는다." 이랬더래요.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긴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래 말대답을 못 하니까 죽였죠? 죽였는데 나중에 조주 스님이 들어와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얼른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 팽등같이 달아나가거든요. 무슨 까닭에 신발을 벗어서 한 짝을 머리에다가 이고서 나갔는가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여러 해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그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것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말로 해서도 아니 되지만 뜻으로 다 알고 말 없이도 대답할 수 있죠. 조주 스님이 왜 짚신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다 이고 나갔겠습니까? 힌트는 말입니다, 죽인 남전 스님도 죽인 사이가 없고, 고양이도 죽은 사이가 없고…. 왜 짚신을 벗어서 이고 나갔을까?

지금 이 공부는 자기 자완성입니다. 수없이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로 듣는다면 말로 떨어지고 말아 버립니다. 그 말이 말이 아닌 바로 자기의…, 모두 각자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말한 것도 둘이 아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달마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가' 하는 도리요. 여기서 마음공부 하신 분들은 대충 헤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염이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무슨 까닭에 그랬을까요? 그건 입으로 말을 안 하고도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입으로 말을 해서 대답을 하면 어폐가 되고 도루묵이 되죠. 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것도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학인이 어느 스님한테 물었더랍니다. "어떡하면 깨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본래 귀신 방귀씨는 너한테 심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기르기만 잘 기르면 되지 않겠니?"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르면 잘 기르겠습니까?" 하니까, "귀신 방귀씨니까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덜 먹이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먹이면 되느니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허탕을 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서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귀신 방귀털이라고 해도 되고 귀신 방귀라고 해도 되죠. 그건 말 붙이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말을 해서 오히려 잘못될까 봐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말대답하실 분이 그득한데 어째 말대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르칠까 봐 안 하시겠죠.

'조주 스님이 짚신 한 짝을 머리 위에 이고 삥하니 나갔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소리가 거기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치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 이런 소리 다들 아시죠? 내 이 내면세계에는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쥘래야 쥘 것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또는 꿸래야 꿸 수도 없는 거죠. 단지 그거는 자기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봉이 된다면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을 다 조복을 받는다' 고 했습니다.

이 여러분의 몸속에는 생명체들이 많아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도, 중생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랬다는 얘기 많이 하죠. 선장한테다 맡기지 않고 항상 자기가 '관세음보살' 이름만 들입다 부르고 온통 난리가 나니까 배가 뒤집히더라는 얘기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몸뚱이 속에는 생명체들이 많은데, 우리 몸은 집과 같고 배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의해서 꼭같이 닮아 주느냐는 얘기죠. 같이 흡수가 되느냐, 같이 공심으로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공심이 되지 않는다면 조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현실로 봐서도 이게 딴 데서 들어온 세균이면 싸움이 납니다. 또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화합을 제일로 쳤습니다, 화합! 그래서 내 몸뚱이 안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조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은 인연의 줄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과거로부터 인연 지은 것을 반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인연을 지어서 왔는데 본래 근본은 말이 없죠.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본래 근본은 그렇게 작당을 하지도 않고 말이 없고 남한테 억울하게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의식들이 자기가 지은 인연대로 자꾸 말을 하게 하고,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이 몸속에서 생명의 의식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못살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좋게 이끌어서 말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도 많이 이끌죠. 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둘로 보지 않았을 때에 조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 22면으로 계속



내 마음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살피라

☞ 21면에서 계속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끌어 주는 것은 뭐, '달마 대사의 수염이 왜 없느냐, 돌장승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얘기들은 통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대로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놓아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놓으라고 한 이유는 직결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스님네들이 "화두, 화두"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나온 게 화두인데 남한테 화두를 또 받아요? 내가 나온 게 화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모두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 소리는 하고 있죠. 그런데 내 마음 이 자체를 '다스린다' 하는 것은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 거죠. 다 그렇게 놓고 가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은 일대로 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면서도 해요. 함이 없이 일을 해요.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전화도 있고 뭐니 뭐니 하면서 편리하게 다 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그런데 난리가 나서 전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는 그거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들고 다녀 봤자구요. 또 아닌 밤중에 자기라든가 자기 식구가 어떻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시급한 문제죠.

이 나 하나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 '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둘로 보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퍼뜩 알아낼 수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있으니까 일체 만법이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이 중생들을 조복을 받게 되면 이게 보살의 역할을 합니다. 전부 보살 역할을 하고 또 그 보살의 개수가 모자란다 하면 똑같은 보살을 수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커서 이 허공에 꽉 차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닥쳐오는 대로 해결을 하지 어떻게 '요거는 닥쳐올 테니까 요걸 요렇게 하고, 저거는 안 닥쳐올 테니까 기쁜 일이니까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삽니까? 시시각각 닥쳐오는 대로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죠. 그런데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은 닥쳐오는 대로 우리가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잘되는 것만 잘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길을 걷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다면 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가질 못하게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몇천만 원을 들여서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되는 거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해 나가다가, 즉 말하자면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질 때 잠깐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래야 공부를 할 때 부딪침과 감각, 촉각, 시각, 미각이나 이런 여섯 가지 모두를 다 자기가 동시에 느끼면서 해결을 하죠.

이 몸속에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조그마하니까 하등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거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거친 인연들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건너뛰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 아래 축생들은 그냥 먹고 살기 급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알지 한 번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사람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부처 될 가능성이 99%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똑같이 부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많으냐. 똑같이 부처라 하더라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다르고, 하는 차원이 모두 다르고, 살아 나온 기술이 다르고, 모든 게 자기의 습대로 하고들 산단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모습도 삶도 또 권세도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벗어난다는 말조차 없이 그대로 내 몸에서 이 모든 생명들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내는 대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라도 이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모든 걸 이익하게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성을 하면 이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가 스스로 벌써, 모두 부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래의 마음은 공심(共心)이다. 여래의 몸은, 즉 말하자면 공체(共體)다. 공체기 때문에 크죠.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 하나지만 공체이기 때문에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용(共用)을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에서도 공용이요, 바깥에서도 공용입니다. 이런 얘기 곧잘 하죠.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먹었다고 하면, 이것을 내가 먹은 겁니까? 이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목마르다고 달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줬는데, 준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나누어 먹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게 된 동기를 알게 되면 동시에 그냥 한마음이 돼 주죠. 지나가다 보면 하다못해 소나무도 말을 하고 돌도 말을 하는데, 이 속의 의식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남이 볼 때는 나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사이가 없다. 이 물은 내가 먹은 사이가 없이 더불어 같이 공식(共食)을 했다 이런 뜻이 나오죠. 공식을 하고 있다.

> **구름 지나가듯 하는 것이 한 철 인생살이입니다.**
> **그런데 한 철을 어떻게 사느냐,**
>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 공식이 아니라 이 모든 거,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공식입니다, 그게. 같이 움죽거리죠, 이 몸도. 지금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움죽거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모든 부서에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죽거리는 겁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만 움죽거려 주지 않아도 그냥 폐인이 돼 버리고 말죠. 모두가 그렇게 움죽거려 주는 걸, 본래 그렇게 움죽거려 주고 같이해 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얍삽해서 이거를 죄다 가르는 거죠. 자기 자불이 그렇게 있고 자불로 하여금 마음이 의식하고 통해서 같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 주질 않으니까 같이 조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인연 받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거를 면할 수가 없다 이러는데, 이 공부는 팔자 운명도 없고 고(苦)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고라는 건 집착만 없으면 모든 게 없어요, 집착! 집착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을 먹었으니까, 내가 물을 줬으니까 저 물 대신 뭐가 오겠지.' 하는 이런 집착, 또 '내가 해 줬으니까 좋게 되겠지.' 하는 집착, '부처님한테 뭐를 놓았으니까 뭐가 오겠지.' 하는 이런 집착, 이런 집착들이 모두 자기를 멸(滅)하게 못 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한 그릇 떠다가 부처님한테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부처님한테 놓았다 하면, 뭐 몇 억을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한 사이 없이 했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죠, 그냥. 그러니 돈보다도 수없는 이 허공을 다 준대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준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왜 집착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알갱이나 산다고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미워하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 이러고…. 간혹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집착입니다. 모두가 집착이에요. 그래서 고·집·멸·도 아닙니까? 고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고라는 것은 집착이 없다면 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멸하면 도다, 이거예요. 간편하죠, 아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여기 걸어서 들어올 때 내 발자국을 짊어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왜 없어진 그 발자국에 집착하느냐. 없어진 발자국에 집착을 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살면서 그냥 '요거는 요게 잘못됐다,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건 정말 날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영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질 않는 그것이 집착이에요.

무상하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것도 한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구나. 이것도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저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 내 마음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남의 마음을 살펴 주는 그런 마음이라야만 되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쌍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디를 들여다봐도 다 불쌍해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집을 들여다봐도 불쌍해요. 그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도 더 아픈 게 들어 있더라구요.

그러니 어느 사람치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게 살지 말라 이거죠. 한 철이다 하는 얘기죠. 발자국을 잘 떼어 놓는다 해도 한 철, 못 떼어 놓는다 해도 한 철이고 한 찰나죠. 그래서 남하고 속으로 말다툼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연고가 있길래 그랬겠지.' 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써 주고 지혜롭게 내 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풀잎 하나도 나를 옹호하지 않는 풀잎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친구고 모두가 벗이죠. 생명들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같이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이렇게 굴러온 거니까요. 그렇게 왔으니까요. 줄창 그런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한 철을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처럼 살 때도 바로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어요. 그 아픈 것은 똑같애요. 사람이 아파하는 거나 짐승이 아파하는 거나 미생물이 아파하는 거나….

그래서 구르고 구르면서 진화하고 형성되고 한 그 자체가 바로 근본이에요. 그 근본이 바로 지금 자기를 리드해 가고 이끌어 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척 그냥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기가 산다고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고 날뛰고 그런다면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철날 때까지. 그와 같습니다, 이 마음 도리도.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밤중에 많이 다녔어요, 산에. 산이든 들이든 물이든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처럼 학식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았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승이 처음에는 나한테 있다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냥 하나가 되죠, 둘이 됐다가. 그래서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혼자 있다가 누구를 만나면 둘이 되는데, 순간에 하나로 이어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이어지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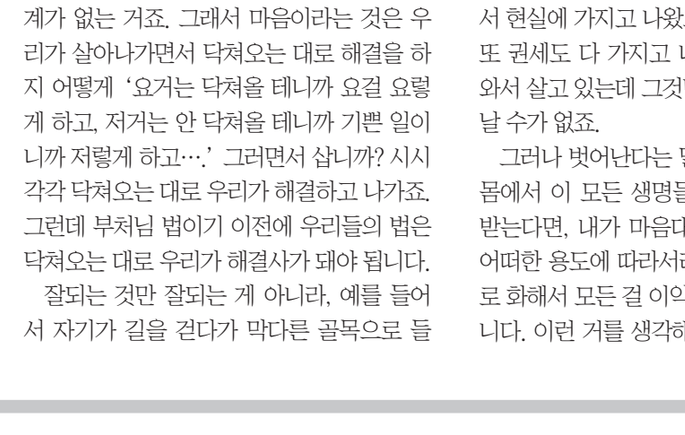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9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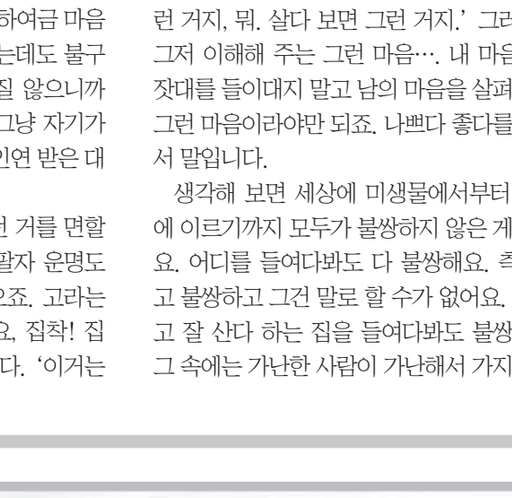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현불 논단

대선, 불자가 바라는 후보는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1월 승려대회서 종교편향 성토
이번 대선 韓불교 비전과 관계
불자, 어떤 후보 선택해야 하나

佛法 핵심, 중도 지혜를 가지고
자비 공동체 구현 의지 지녀야
불교문화 이해 높은 후보 필요

지혜 · 자비 가진 후보 누구일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보아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면서 공식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됐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기회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불교와 불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불교는 오랫동안 정치권력의 중심부로부터 핍박과 불이익을 받아 왔다. 8 · 15 광복 이후, 특히 한국전쟁 중 구호 물품과 함께 이 땅에 대거 상륙한 기독교 세력은 크리스마스의 캐럴 속에서 정치적 은총을 계속 받아 왔다. 지난 1월 21일 조계종 전국 승려대회는 이러한 누적된 종교편향에 대한 항의였다.

긴 종교의 역사를 보면 종교와 정치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정교분리'는 내숭일 뿐이다. 불교는 단순한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다. 깨달음은 오히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하화중생과 자비정신을 사바세계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불자에게는 민주주의의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비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불자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불자가 선택해야 할 후보의 자질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본다.

첫째, 중도적 지혜를 가진 후보다. 중도는 붓다 다르마의 핵심이다. 중도는 중간도 아니고 중용도 아니다. 중도에 대한 가르침은 양극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불교의 개방성은 이러한 중도의 지혜에서 나오고 불교의 평화 사상도 여기서 나온다. 한국 정치의 현실은 중도의 틀에서 보면 참으로 난감하다. 배타적 진영 논리와 계산적 좌우 이념 논쟁이 난무한다. 그 사례를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전투구의 정치 마당에서 그래도 얼마간의 중도적 지혜를 갖춘 후보는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어본다. 중도의 지혜는 한국 정치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둘째, 자비 공동체 구현의 의지를 가진 후보이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덕목이 아니다. 자비는 모든 윤리적 덕목의 꼭짓점이고 정치사회적 지향가치의 총화이다. 자비의 덕목에는 연민, 공감, 우정, 생명존중 등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부터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등 사회윤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하화중생은 바로 자비공동체의 구현이며, 행복하고 바른 사회 만들기다. 이러한 자비 공동체 구현은 세상사에 대한 폭넓은 정견(正見)과 실천력이 요구된다.

셋째, 불교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진 후보이다. 한국의 '찬란한' 문화는 불교의 문화 속에서 꽃핀 것이다. 불교문화와 불교문화유산이 없는 한국문화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하나의 신앙 집단으로 간주하고 불교문화유산을 신앙의 재물로 폄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위에서 불자가 선택할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보았다. 첫째와 둘째의 자질은 큰 틀에서 제시한 것이고 셋째 자질은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후보를 가려서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다. 모든 후보는 표를 위해 모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자질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붓다 다르마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믿음에 관한 발자취와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붓다 다르마의 지혜와 자비 실천의 비전을 가진 후보는 누구인가? 10%의 자질이라도 좋으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보아야겠다.

또한 불교는 앞으로 세 가지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터를 일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社說

백만원력결집, 마지막까지 집중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기자회견문이 2월 10일 발표됐다. 본래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해 계획을 발표하려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문서 배포로 대체했다.

이번 회견문에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제36대 집행부의 지난 4년간의 궤적과 성과들이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제36대 집행부의 중점사업이었던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성과였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2019년 시작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성과가 부처님 성도처인 인도 부다가야에 분황사를 건립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한데 이어, 오는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6월에는 계룡대에 국군불교 전법 전초기지 호국 홍제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행정수도 세종시에는 한국불교체험관과 광제사 불사가 한창이다.

조계종의 숙원사업이었던 불교요양원 건립불사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난항을 겪었던 10.27법난 명예회복기념관 불사도 다시 안정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36대 집행부는 전통사찰 규제 개선을 비롯해 〈불교성전〉 발간, 승려복지 체계 확립 등 굵직한 종단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

원행 스님도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퇴임까지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 · 문화 트렌드에 맞춰 내놓은 '불교문화비전 2030'은 기대가 크다.

시작과 과정이 좋았던 만큼 마무리도 좋아야 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부족했던 한국불교의 인프라 확장에 초석을 세웠다. 그 초석의 완성을 위해 제36대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나눔의집 스님들의 대승적 결단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이 최근 법원의 '경기도 해임명령 취소 소송' 기각결정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법적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나눔의집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대승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스님들의 항소 포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초 해당 소송은 이사 스님들에게 제기됐던 횡령 · 배임 등 의혹이 경 ·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경기도가 해임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입증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기됐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사 스님들로서는 아쉽고 억울한 측면이 적지 않다. 때문에 법원 결정 이후 항소를 통해 끝까지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님들은 항소포기를 택했다.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정상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바라는 것은 명확했다. 바로 나눔의집 정상화다. 스님들은 현재 임시이사회 체제의 임시이사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파견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음에도 되레 혼란이 가중되고 정상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며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되겠다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빨리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돼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나눔의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들의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눔의집이 하루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설립정신을 토대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오름서 전하는 새해 인사

어제, 누군가에게로 떠나간 매정한 저녁 해가, 오늘, 나에게로 따뜻한 붉은 여의주가 되어 막막하고 힘든 밤을 지나 희망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로 건넨 인사는 평안의 미소가 됩니다. 이 아침, 조금은 긴장된 내게로 위안의 손을 내밀어 희망의 새해 인사를 해옵니다.

이른 새벽, 시린 코끝으로 바람에 한들거리며 다가선 수선화 향을 맡으며 캄캄한 길을 걸어 가까운 오름을 오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마음에 맑고 밝은 기운이 깃들길 바라며 걸어갑니다. 이 어둠을 건너 아침이 오면 자비롭고 평온한 마음이 깨어나길 바라며 걸어갑니다.

삶은 마음의 투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넉넉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예민한 사람 등으로 비칩니다. 하지만 오름에서 바라본 마을의 불빛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평온하게 반짝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내거나 거두는 다른 모습을 띤 마음의 빛이 있을 뿐입니다. 매 순간 맑지만도 흐리지만도 않습니다.

살아가며 어디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마음에 이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뒷모습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뒤를 따라 기러기처럼 줄지어 걸어가는 수행자 벗들의 뒷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오름에서 바라본 마을의 불빛들은 따스하게 비춰줄 태양을 기다리며 묵묵히 어둠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해 첫 햇살을 맞고 있는 오름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내게 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밝고 따스하게 당신에게 다가가렵니다. 새해 아침 햇살을 받는 당신에게서 차디찬 겨울밤을 지나온 맑고 강건한 수선화 향이 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쌍윳따니까야〉 게송품에서, 세존께서는 싸왓티의 제따나와 아나타삔디까 사원에서 꼬쌀라의 빠쎄나디왕과 말리까왕비에게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다녀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네./ 이처럼 다른 사람도 저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네.

향기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줍니다. 저 새해 아침 햇살이 밝은 긍정의 희망을 품게 하듯이, 임인년에는 조금 더 자신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름에서 바라본 당신이 머무는 마을은 어둠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는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차별 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설사 흐린 날이라 할지라도 저 구름 위에는 희망의 해가 떠 있습니다. 어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호호일일시호년(好虎日日是好年)' 하소서. 호호 웃는 좋은 호랑이 기운이 날마다 이어져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으소서.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불기2566(2022)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신년 기자회견문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삼아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매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불자여러분! 임인년 새해 국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의 안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일상의 단절로 인한 고된 삶과 생활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감염병의 위기, 일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불교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길에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 한국불교계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화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5,000여 스님들과 함께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물론, 감염병의 확산 위기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우려의 시선과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님들께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향과 차별이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기에 '편향'과 '차별'에 대한 화두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승려대회를 향한 우려의 시선과 목소리는 온전히 우리 불교계의 책임과 몫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것 또한 우리 불교계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비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했더라도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종교위기의 시대입니다. 한국불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여의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 토대를 만들어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만원력 저금통을 들고 온 어린아이의 마음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노 보살님의 손에 쥐어진 저금통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백만원력은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토대

백만원력 결집은 감동과 정성의 결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력이 하나하나 모여 이제 결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도 부다가야에 종단에서 건립하는 한국 최초의 사찰로 기록될 분황사는 작년 12월에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올해 5월이면 완공과 함께 점안법회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육해공군본부 계룡대에 건립되는 호국 홍제사는 국군불교 전법과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6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건립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는 9월이면 예정대로 준공식이 진행되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건립 예정인 문화재연구시설은 올해 3월 착공식과 2023년 상량식을 봉행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열암곡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기원법회를 봉행하였으며, 경주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스님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평생을 수행과 포교를 위해 전념하신 사부대중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교요양원 건립 사업은 2021년 12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물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승려복지회를 통해 요양원 건립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7 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10.27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비롯하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또한 직영사찰인 조계사 및 봉은사 주지스님들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전통불교문화

대한민국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온 포용성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과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어 지난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세계가 인정한 것으로 더불어 살아 숨 쉬는 전통불교문화가 온전히 보전·계승되어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박하게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성원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지난해에는 누적 참가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민들께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방역 등을 위해 실시한 공익 템플스테이는 지난 3년 동안 12만 명, 사찰음식을 통한 나눔 행사에는 4만 5천 명이 동참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브랜드로 우뚝 서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평등세상을 위해 달려온 10년

우리 사회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과 인권, 생명의 화두를 들고 활동해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해결 기도와 KTX여승무원 복직 활동, 송파 세 모녀와 무연고자 추모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30km 오체투지 및 국회 앞 기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이주 노동자 죽음 해결과 추모 활동 등 사회적 약자 문제와 평등 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함께하며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전통사찰 규제 철폐는 시대적 과제

36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과제 중 하나인 전통사찰 규제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불교 관련 규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규제 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토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완료하였고 사찰 경내에서 발견된 성보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건축법", "매장문화재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비롯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법령이 온전히 개정되어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자연·문화유산 체험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보존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려복지 제도 정착을 통한 안정적 수행 토대 마련

지난 2020년 승려복지제도가 뿌리내린 지 10년을 맞아 종단은 안정적인 승려복지 체제 확립을 위하여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0%정도의 스님들이 동참하여 시행 1년여 만에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학인스님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에게 입원진료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종단의 승려복지제도 정착과 함께 국가의 복지제도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님들의 안정적인 복지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대장경 불교성전 발간

팔만대장경이란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한국불교는 방대한 양의 다양한 경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전 중에서 어떤 것이 핵심인지, 우리 불자들이 어떤 경전을 수지 독송해야 하는지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방대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 정리한 불교성전의 발간은 21세기 대장경으로 생활 속 상황에 따라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상과 오디오북, 전자책 등으로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삶과 생활의 나침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갈등을 접고 화쟁으로

총무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일어났던 종단 내부의 갈등이 대화와 설득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대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종단 화합과 승가 대통합을 위한 '종단화합 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용서하고 존중하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불국정토를 성취해야 한다는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승가공동체 화합을 제일 덕목으로 삼을 것을 부처님 전에 고하며, 서로가 함께 승가를 이루는 도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단의 화합과 혁신을 통한 발전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승가의 제일 덕목은 화합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종단은 화합과 청정을 회복하고, 승가는 건강한 수행자로 거듭나도록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2022년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

2022년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정통성을 간직한 유일한 종단으로 명맥을 이어온 대한불교조계종이 비구대처간 분규를 종식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법회와 학술 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콘텐츠의 보존과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더불어 밀레니얼세대(MZ) 등 다양한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폭넓은 기대는 국가의 제도와 종단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찰 곳곳에 민족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의 보존과 콘텐츠로의 활용을 위해 '불교문화비전2030'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와의 협력사업(K-Buddhism)을 비롯한 불교무형문화유산 연구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문제는 세계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는 인간의 이기에서 비롯된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자산으로 온전히 가꾸어 온 사찰림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생명존중과 연기적 삶을 토대로 한 불교적 가치와 친환경 생활문화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적 자산을 기반으로 교구본사 차원에서 기후 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서약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찰용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등 불교적 실천 활동 전개와 대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3월이면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는 종정예하를 새롭게 모시게 됩니다. 종정예하의 큰 가르침이 세상의 지남이 되어 온 세상에 덕화가 만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삼아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매진합시다.

36대 총무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길었던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난 4년 여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국불교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이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로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등불을 밝혀 수행정진하며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 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36대 총무원은 올해로 끝나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앞날에 미력하나마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언제나 국민과 불자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6(2022)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